2011.05.18 NO.109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창업정책도 창조적으로 발상하라 P29~45

대한민국사회봉사단

Korea Hands 단원 모집

당신의 열정을 나누세요,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하며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새로운 '국가사회봉사' 모델입니다.

모집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 경기도, 전라남도에 주소지가 있거나 재학 · 휴학 중인 대학교(원)의 주소지가 경기도, 전라남도인 청년

모집 개요

활동 지역 경 기 도 : 수원, 용인, 안산
전라남도 : 목포, 나주, 신안, 무안, 진도 등(도서 포함)

활동 기간 2011.6.23~2011.12월 말(6개월)

인 원 시도별 총 250명(전일제단원 50명, 시간제단원 200명)

활동 시간 ① 전일제단원(주 40시간)
② 시간제단원(주 10시간, 분야별 상이)

모집 대상 개인별 · 팀별 모집

모집 분야 ① 국가제시분야: 빈곤아동 · 노인 지원
② 지역제시분야

경기도	– 북한이탈주민 아동 · 청소년 학습 및 정서지원 –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 및 정서지원
전라남도	– 사회복지시설 전기 · 가스 안전 점검 – 도서지역 아동 정서지원 서비스 – 도서지역 등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정비

③ 자율발굴분야: 봉사팀이 희망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일감을 선택, 봉사 계획서 제출 · 지원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1.5.3(화)~2011.5.25(수) 18:00까지
* 접 수 처: www.koreahands.org에서 신청

참여 시 혜택

*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활동 인증서 발급
* 단원 자치 활동과 체계적인 리더십 훈련 기회 제공
* 전일제단원 활동비 지급(월 20만원)
* 팀별로 활동 재료비 등 실비 지급(6개월 간 최대 100만원)
* 활동 수료 시 장학금 지급 또는 해외봉사기회 부여

구 분	내 용
전일제 단원	❶ 장학금(500만원 한도 한학기 장학금 교육기관 입금) 또는 ❷ 해외봉사활동(20일 내외)
시간제 단원	❶ 장학금(200만원 한도 한학기 장학금 교육기관 입금) 또는 ❷ 해외봉사활동(10일 내외)

*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장학금 한도의 50% 수준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

문의사항

* 대한민국사회봉사단 Korea Hands 경기도지원단
(☎031-213-8551, kohandsgg@gmail.com)
* 대한민국사회봉사단 Korea Hands 전라남도지원단
(☎061-285-8947, kohandsjn@gmail.com)
* 홈페이지(www.koreahands.org)

대한민국 사회봉사단 Korea Hands 중앙지원단

도전정신이 창조적 명품 만든다

황철주
벤처기업협회장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훌륭한 일은 창업이라 생각한다. 양질의 창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국가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하지만 창업엔 늘 리스크가 있다. 이 리스크를 국민이 져서는 안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과 똑같이 리스크가 제로여야 한다. 창조성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실하다.

페이스북 창업자로 유명한 마크 주커버그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대기업·공사 공채나 사법고시·행정고시 등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것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창업 현실이 뛰어난 인재들의 창업의지를 꺾는 것이라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창업에 대한 법과 규제를 완화하고, 인재들은 국내시장을 넘어서 세계시장을 사업대상으로 보고 도전하여야 한다.

유망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벤처기업 스스로도 '글로벌 벤처'를 목표로 해야 한다. 타 기술을 모방해 조금 싸고 좋게 만드는 수준으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처음부터 글로벌 넘버원을 목표로 명품을 창조하는 것만이 벤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거대 자본과 인력을 가진 대기업은 양산에 강한 반면, 중소벤처는 '창조적 명품'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이는 대기업 CEO는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벤처 CEO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직접 연구개발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명품이 벤처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중소벤처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창조적 명품'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창조적 명품'은 추격 마인드가 아닌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블루오션, 신제품,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글로벌 넘버원을 목표로 명품을 창조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창조적 명품'이란 추격(Catch up) 마인드가 아닌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블루오션, 신제품,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을 답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향후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벤처 스스로 명품을 만들겠다는 정신과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벤처 생태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생태계는 끊임없이 창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다. 사업실패가 모든 것을 잃는 구조가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초기 조건들이 상당히 달라 선진국의 성공적인 벤처 생태계를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긍정적 피드백과 공동 진화,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새로운 씨앗이 지속적으로 뿌려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확산에 노력한다면 창조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G

Contents NO.109 2011.05.18 통권 210호

일러스트 · 이철원

29

기획특집

젊음의 꿈을 찾아 글로벌 창업 도전!

'벤처 한류'를 향한 장정이 시작됐다.
좁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거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벤처 창업, 다시 말해 '글로벌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장한다.
규제를 완화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문을 넓힌다.
정부의 구상은 종전 소수의 모범사례가 예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큰 길'로 만드는 것이다.

표지 이야기 안철수 교수는 자타 공인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리더다. 최근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알리고 있는데, 그는 기업가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사진 · 조선DB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5.1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19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변화하는 공기업의 노력 엿볼 수 있어

"기획특집 '공기업이 바뀐다'를 읽으며 공기업에 대해 지녔던 편견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은 사기업처럼 홍보나 광고를 접할 기회가 없어 변화나 추진 현황을 알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기사를 통해 다양한 변화와 발전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체 없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준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앞으로도 공기업 모두가 자생력 갖추길

"책임경영 했더니 사상 최대 실적 '열매'의 주인공, IBK 기업은행 관련 기사를 접하니 제 일처럼 반가웠습니다. 순이익 1조 클럽에의 재가입, 개인 고객 1천만명 돌파, 그리고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성공적 안착은 공기업 하면 떠올랐던 '철밥통'과 '무차별 퍼주기' 따위의 부정적 국민 시각까지 불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모두가 기업은행에 버금가는 자생력을 오롯하게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초롱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뛰는 '탈세자' 위에 나는 '역외탈세 담당관' 있네

"중점기획으로 다룬 '지구 끝까지 쫓아 탈세 뿌리 뽑는다'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조세 정의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운영되어 직원들조차 누굴 조사하는지 모른다고 하니 더욱 공정성이 느껴집니다. 역외탈세 담당관들이 '뛰는 탈세자 위에 나는 역외탈세 담당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세금 납세자들을 위해 꼭 탈세를 받아서 우리나라 세원으로 잘 쓰이길 바랍니다."

정혜윤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이해인 수녀님, 건강 빨리 회복하길

"얼마 전 이해인 수녀님이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어서 무척이나 안타까웠는데 〈공감〉 인터뷰 기사를 통해 밝은 표정을 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암투병 중인데도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전하는 산문집을 내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널리 사랑을 전하시는 수녀님의 정신을 본받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글을 통해 암투병 중인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명화 (경남 양산시 소주동)

〈조선왕실의궤〉 귀환은 문화재 환수 노력의 쾌거

"지난호 '日에 있던 〈조선왕실의궤〉 조국으로'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꾸준히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자 쾌거라고 생각되네요. 아직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일깨워 줄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해외에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의궤 반환이 그런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은경 (대전시 중구 문화1동)

이 기사, 아쉬워요

"'세금알리기'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중점기획 '공정과세와 성실납세'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블로그나 UCC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정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홍보단이 활동하는 '세금알리기' 콘텐츠나 UCC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관련 사이트의 주소가 궁금합니다.

김수현 (회사원, 부산시 중구 보수동)

"경제 용어, 쉽게 설명해주세요"

김문수 국세청 차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탈루소득, 과세 인프라, 세정의 고도화 등 평소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가 많았습니다. 독자가 읽기 쉽게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거나 용어 설명이 덧붙여지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취업준비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24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사업체나 가게 등을 처음으로 만들어 시작함. "청년 OO, 세계의 문을 두드려라!"
4. 돈을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6. 다른 곳으로 옮김.
8. 5월 8~14일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국 중 한 나라. 파리 에펠탑이 유명하죠.
10. 손가락으로 글자판의 키를 눌러 종이에 글자를 찍는 기계.

세 로

1.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이 도시의 옛 이름.
3. 집 앞에 버려진 아이. 주로 자식이 없는 집 앞에 버려지며 보통 그 집에서 키웠다고 하죠.
5. 수갑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 범인은 체포되어 OOO을 찼다."
7. 원래는 전방 초소의 전투 기지를 가리키는 말이나 무슨 일을 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기관이나 조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9. 별. 인기인. 장성.

〈Weekly 공감〉 107호(4월 2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맞벌이 **4** 거북선 **6** 고인돌 **7** 해일 **9** 인사과
세로 **1** 안거 **2** 맞선 **3** 이비인후과 **5** 북극해 **8** 일인칭

〈Weekly 공감〉 107호 '공감 퍼즐' 당첨자

류병영 ·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박승진 ·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유병하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이예선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정 진 ·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알립니다

페이스북으로 중소기업을 응원해주세요

중소기업청은 유재석, 강호동, 소녀시대 등 국내외 정상급 연예인 32명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응원 릴레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중소기업청 페이스북(facebook.com/bizinfo1357)을 방문해 연예인들이 올린 중소기업 응원 메시지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기'를 눌러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입소문을 내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분 중 총 72명을 선정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기간 | 5월 16~29일(2주간)
경품 내역 | 아이패드2 1명, 디지털카메라 1명, 온누리상품권 70명
중소기업청 대변인실 ☎042-481-4572 www.smba.go.kr

(구)서울역사의 새 이름을 지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구)서울역사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구)서울역사는 우리 근현대사의 애환을 간직한 역사적인 공간이다. 오는 8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구)서울역사의 참신한 명칭을 기대한다.

접수 기간 | 5월 20일까지
접수 방법 | '(구)서울역복합문화공간 네이밍공모' 홈페이지에서 응모
결과 발표 | 5월 31일
지원 혜택 | 시상 외 소정의 상금 수여
(구)서울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국 ☎02-398-7917 www.seoulstation.org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고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이명박 대통령과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이 5월 9일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FTA 발효 앞두고 전방위 녹색외교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오는 7월 개시되는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가진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덴마크·프랑스 등 3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실질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한·덴마크간 녹색성장동맹을 출범시키고 한국이 창설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코펜하겐 사무소 개소식을 갖는 등 녹색외교에 힘을 쏟았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7박8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중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첫번째 순방국인 독일을 방문 중이던 5월 9일 베를린의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핵 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 27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대의 전제조건이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임을 분명히 밝혔다.

EU 최대 교역 파트너 독일과 협력 확대

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는 한·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양국은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발굴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은 EU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지난해 독일에 대한 수출은 1백7억 달러(전년대비 21.3퍼센트 증가), 수입 1백43억 달러(16.3퍼센트 증가)를 기록했다. 또 독일은 EU국가 중 네덜란드, 영국에 이은 제3의 대한(對韓) 투자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 연방 하원을 방문, 노어베르트 람메르트 하원의장과 만나 그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독일 의회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 독일 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독일 연방 하원은 세 차례(2001년 7월, 2004년 1월, 2008년 12월)에 걸쳐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5월 9일 독일 베를린 총리공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일 연방 대통령 관저인 벨뷔성에서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증진, 녹색성장·재생에너지 협력, 문화교류 등 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양국은 부품소재,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협력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독일 방문 첫날인 5월 8일 저녁 베를린 도린트 호텔에서 독일 북부지역 동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중국과 베트남처럼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독일 중·남부지역 동포간담회에서는 광산근로자, 간호사 등 우리 산업역군들로 형성된 독일 한인사회가 조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한·독 우호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치하했다. 독일에는 1960~70년대 진출한 광산근로자 및 간호사,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약 3만1천명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다.

덴마크와 녹색동맹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이 대통령은 5월 11일 두번째 방문국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 마그레테 2세 여왕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덴마크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공식 환영식을 마친 마그레테 2세 여왕은 프레덴스보궁으로 이동해 이 대통령 내외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외국 국가원수와 덴마크 및 외국 왕족에게만 수여되는 최고 훈장인 '코끼리 훈장'을, 김윤옥 여사에게는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펜하겐 랑에리니에 부두에 있는 유틀란디아호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행사를 가졌다. 한국전 당시 덴마크는 1951년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를 파견했고, 덴마크 의료진은 약 3년간 1만명 이상을 치료했다. 유틀란디아호에서 근무한 인원 중 현재 약 30명이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

덴마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1일 오후 프레덴스보궁에서 마그레테 2세 여왕 주최 국빈만찬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여왕의 부군 프린스 헨릭, 이 대통령, 마그레테 2세 여왕, 김윤옥 여사.

5월 11일 덴마크 공대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코펜하겐 지사 개소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

덴마크의 녹색성장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와 함께 코펜하겐 근교 아마섬에 위치한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8-Tallet'을 방문했다.

'8-Tallet'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려는 덴마크의 녹색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택단지다. 이곳은 냉방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무실 건물은 북동쪽에, 난방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주거형 건물은 남서쪽에 배치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덴마크 측과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8-Tallet' 주택단지 방문은 덴마크 첨단 녹색기술 현황의 시찰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레데릭 왕세자와 함께 덴마크 공과대학 안에 설립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코펜하겐 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가 창설한 첫 국제기구로 서울에서 문을 연 GGGI는 설립 1년 만에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호주 등 여러 공여국가들이 참여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첫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GGGI의 국제적 네트워킹이 본격화된 것을 축하한 이 대통령은 "GGGI 코펜하겐 사무소가 북유럽 녹색기술의 중심지인 덴마크 공대에 설치돼 선진국 내에서 녹색성장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코펜하겐 사무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덴마크 방문 이틀째인 5월 12일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Korean-Danish Green Growth Alliance)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덴마크의 선진적 녹색기술과 한국의 성장동력이 결합한 녹색성장 동맹이 양국의 관련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논의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양국은 앞으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제 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녹색성장 동맹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출범식에서 동맹의 첫 걸음으로 우리 지식경제부와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현대차와 코펜하겐시, KAIST와 덴마크 공과대학간 양해각서 등 9개의 녹색성장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한·덴마크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의 청정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국제적 확산

마지막 순방국인 프랑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이 5월 13일 오전 파리 개선문 참전용사비에 헌화한 후 한국전에 참전한 프랑스부대의 깃발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GGGI와 덴마크 정부가 민관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금번에 발족시킨 글로벌녹색성장포럼(Global Green Growth Forum)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정상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시키는데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치·안보분야 협력을 위한 장·차관급의 정기 정책협의회가 서울과 코펜하겐 등을 오가며 개최되고 덴마크 의회와 국회간 교류 협력도 강화된다.

프랑스서 G20 전·현 의장국 간 정상회담

5월 12일 저녁 마지막 순방국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다음 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 정상회의 전·현 의장국 간의 협력과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한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을 논의했다. 한반도와 유럽 정세,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긴밀한 협의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5월 14일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한·불 경제인 간담회, 프랑스 석학들과 조찬간담회, 파리 7대학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올랐다. G 글·박경아 기자

덴마크를 방문 중인 김윤옥 여사가 5월 12일 코펜하겐 인근 루더스텔시의 숲속 유치원을 방문해 원생들과 야외에서 빵을 굽고 있다.

한·EU FTA 비준안 마무리

자동차·IT업계 '수출 단비' 기대감 높아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협상 당시 EU 측과 합의한 대로 7월 1일 잠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는 한·EU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이번 비준안 통과를 계기로 한·미 FTA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EU FTA에 따라 전자, 전기, 자동차 업종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사진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가전전시회(IFA)에 참여한 삼성전자의 부스.

"자동차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FTA를 통한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면 격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권영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장)

자동차업계에 희망의 기운이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현재 4.5퍼센트인 자동차부품 관세가 발효와 함께 철폐되고 10퍼센트의 관세를 물고 있는 1천5백cc 이상의 중대형 자동차는 3년 안에, 1천5백cc 이하 소형승용차의 관세는 5년 안에 사라진다.

무역흑자 연평균 3억6천만 달러로 확대

한·EU FTA에 대한 기대감은 자동차업계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 전자, 전자부품, IT 등에서도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표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한·EU FTA는 FTA가 발효되는 7월 이후 유럽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주가상승 추세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한·EU FTA는 경제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이다. 경제규모가 16조4천만 달러로 세계 경제의 28.3퍼센트를 차지한다. 한국과 교역규모는 연간 9백22억 달러로 전체의 10.3퍼센트다. EU와 FTA가 발효되면 교역규모와 시장점유율이 확대돼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여개 국책연구원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수출은 25억3천만 달러, 수입은 21억7천만 달러가 증가한다. 수입보다 수출 증가액이 많아 무역흑자는 연평균 3억6천1백만 달러 확대된다. 특히 제조업은 향후 15년간 흑자가 연평균 3억9천5백만 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가에 따라 GDP도 장기적으로 5.6퍼센트 늘어난다. 후생은 GDP 대비 3.8퍼센트인 3백20억 달러가 불어난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 덕이다. 일자리도 단기적으로 3만개, 장기적으로는 25만3천개가 창출된다.

수입 품목별 현행 관세율과 관세철폐기한

기한	품목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인쇄기계(8), 컬러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전구(8), 섬유기계(5~8), 컴퓨터부품(8), 항공기부품(3~8), 계측기부품(8) 등
3년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무선통신기기부품(8), 안경(8), 선박용엔진 및 부품(8), 의약품(6.5), 화장품(8),선박용부품(8), 식품가공기계(8) 등
5년	1500cc 이하 소형승용차(8), 밸브(8), 하이브리드카(8), 베어링(8), 시멘트(8),윤활유(7), 기초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7년	순모직물(13), 모사(8),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표면활성제(8), 파티클보드(8), 의료용전자기기(8), X선 및 방사기기(8), 합성고무(8) 등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괄호안은 현행 관세율

수입가격 하락으로 물가관리에도 도움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물가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세가 철폐되면 현재 킬로그램 당 7천2백원 하는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은 5천4백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의류와 와인, 화장품은 5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한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FTA 닥터'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8개 광역시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한·EU FTA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종의 수혜를 기대할 수는 없다. EU 측의 경쟁력이 강한 분야는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그렇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보완대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원칙적으로는 2007년 11월 마련된 'FTA 국내 보완대책'을 따르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농수산업의 경우 'FTA 국내 보완대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21조1천억원이 지원된다.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2조원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다.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향후 5년간 각각 7백억원, 1천억원의 R&D 및 인프라 구축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관세철폐 10년 후에나 실시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도 장기적으로 잡았다. 해당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키울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1천4백49개 품목 가운데 42.1퍼센트인 6백10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반면 EU는 2천64개 품목 중 91.8퍼센트인 1천8백9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감귤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치즈(15년)와 버터(10년) 등 낙농제품은 관세철폐 시한을 10년 이상으로 잡았다. 교역량도 제한한다. 돼지고기는 10년, 멜론이 12년, 닭고기 13년, 육우와 쇠고기는 15년으로, 농업 분야 대부분 품목이 장기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해졌다. 쌀은 철폐대상에서 제외됐다. G 글·변형주 기자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경쟁력 상승… 글로벌 FTA 허브로 발돋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바빠졌다. 지난 5월 4일 국회를 통과한 한·EU FTA의 후속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익주 본부장에게서 한·EU FTA를 통해 달라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들었다.

염동우 기자

1983년 행정고시 합격. 2001년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국장. 2011년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27개국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인 EU와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에 다양한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U와의 FTA는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이 처음이어서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는 한국이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한·EU FTA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방과 경쟁은 한국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동력이었고 FTA는 한국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월 1일 발효때까지 남은 과제는 뭔지요.

"7월 1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EU 측은 지난 2월 17일 비준동의안이 유럽의회 본의회를 통과하고 우리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EU FTA와 관련된 이행법령 개정이 발효 전에 완료돼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이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EU FTA의 경제적인 기대효과는 결국 기업이 얼마나 이를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준비 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우려됩니다.

"한·EU FTA는 6천 유로 초과 수출 시에 세관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만 관세를 감면해 줍니다. EU 수출기업의 경우 FTA 발효 예정일인 7월 1일부터 관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6월 말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8천2백6곳의 EU 수출기업 중 인증을 받은 기업은 8백59개로 전체의 10.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업 수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지만 수출

"수출과 사업기회 확대, 소비자 후생 개선, 경제구조 선진화 등 FTA의 효과는 다양하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 한·EU FTA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액으로만 따지면 전체의 64.5퍼센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출액이 많은 대기업은 이미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지난해 10월 관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인증대상의 80퍼센트가 인증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인증대상 기업의 80퍼센트(수출액 기준)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의 전담 인력을 1백20명에서 1백84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들이 해당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인증수출자 지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확대 외에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중소기업들에 FTA 활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닥터'를 들 수 있습니다. 관세사와 회계사, 지역전문가들이 원산지 증명, 통관절차, 마케팅 등에 대한 일 대 일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6백36개사에서 올해 8백개사로 대상기업을 확대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선 전국 8개 지역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관련 연구기관, 관세법인 등이 참여해 FTA 활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과 FTA를 보면 가격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처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쉽고 관세율이 높은 부문에 대한 관세인하는 아직 개방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단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유통과정도 원인입니다. 관세인하로 발생한 가격이익이 유통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통시장을 선진화하고 부당한 이익을 근절해 FTA의 가격안정 효과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도 당부드립니다."

조선DB

한·EU FTA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개최된 'FTA 박람회'.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미 각각 21조1천억원과 2조1천7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FTA 국내 보완대책'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회에서 추가적인 보호대책도 합의됐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하락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의 발동요건에서 품목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0퍼센트에서 85퍼센트로 완화했습니다. 중소 유통사를 위해서는 SSM 입점 제한거리를 전통시장과 5백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시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SSM규제법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한·EU FTA가 발효된다고 유통법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분쟁패널의 판정결과를 고려해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정부는 개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G

글·변형주 기자

전남도청 앞의 이귀임씨 당시 교사였던 남편(故 윤영규)은 5·18 수습대책위 활동을 하다 구속됐다.

5·18 민주화운동 31주기 김은주 사진전

5월 그날, 그곳엔… 아물지 않은 우리 어머니들의 상처가

총상 입은 이성순씨 1980년 5·18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서구 화정동 한성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계엄군의 사격이 있을 때 집으로 날아오는 총탄에 가슴을 맞아 젊은 나이에 깊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다(사진 위).

아들 잃은 김점례 어머니 당시 24세였던 아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수속을 밟던 중 5·18이 발발했다. 1980년 5월 23일 화순 너릿재에 있던 부상자를 후송하다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사진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찾게 된 이 장소를 찾았다(오른쪽 사진).

"5월의 어머니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 처음 의도한 생각은 제삼자의 눈으로 광주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명인사가 아닌 어머니들을 모델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1주기를 맞아 가슴 찡한 사진전이 열렸다. 지난 5월 12~18일 광주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에 있는 원갤러리에서 열린 김은주 사진전 '여기, 여기… 5월의 어머니'는 1980년 5월 당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이 잊지 못할 장소에서 찍은 사진 14점이 선보였다.

작가는 5·18 당시 자식과 남편을 총탄에 보내야 했던 어머니들을 31년 만에 전남도청, 광주교도소, 화순 너릿재 등 현장에 다시 세워 사진으로 담았다. 작가는 "남편이 사고를 당한 장소였고, 아들이 총과 몽둥이로 죽음을 당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장소이기도 했으며, 본인이 사고를 당한 장소이기도 했다"면서 "처음으로 아들이 죽은 장소를 찾았을 때 한 어머니는 몸을 떨며 '이제야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기도 했는데 이는 작업의 또 다른 자극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촬영을 여러 번 거절하다가 31년 동안 지나다니지도 않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곳에 가 준 어머니도 있었고, 뱃속에서 7개월 된 태아를 잃어버린 어머니도 있었다. 작가는 "이 아픔과 고통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지나야 치유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시 '1991년 청춘의 기억! 전'은 5월 27일까지 전남대 컨벤션센터 용지홀에서 개최된다. 문학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되새기는 오월문학제는 5월 21일 오후 4시 5·18기념회관 대동홀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문학제는 도종환 시인이 '중동의 민주화를 보는 문학인의 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시낭송과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관 3층 기획전시실에는 6월 30일까지 그동안 열렸던 전국 휘호대회 수상작품들이 걸린다. 망월묘역 곳곳에서는 5월 31일까지 만장기 수백 개가 펄럭인다.

글·서일호 기자

주요 외신 "평창이 선두주자"

5월 18~19일 스위스 로잔서 테크니컬 브리핑… 김연아도 발표자로 나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평창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평가단의 실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평가보고서에서 평창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2018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에 대한 조사평가 보고서를 지난 5월 10일 발표했다. IOC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AP 등 주요 통신사들은 "평창이 '선두주자(front runner)'로 나섰다"고 표현했다.

5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후보도시 브리핑에 참석하는 각국 IOC 위원에게 제공될 이 보고서는 평창(한국) 뮌헨(독일) 안시(프랑스)의 비전, 유산, 콘셉트, 경기장, 숙박, 재정 등 17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담겨 있다.

IOC 조사평가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3개 후보도시 모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능력이 있으며,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비전과 개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IOC 평가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외신들은 "평창이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갔다"고 표현했다. AP는 "IOC 실사를 통해 평창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만큼 강렬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고, 독일 통신사 dpa는 "평창이 실사 결과 뮌헨과 안시를 앞섰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평창이 주민 지지도에서 높은 지지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19일 전시관 개관 때 서프라이즈 감동전략

평창 유치위원회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IOC가 평창의 계획에 대해 만족할 만큼 완벽하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도시들과 달리 문제점도 거의 지적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유치위는 "조사평가위원회는 평창이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선수촌과 경기장, 경기장과 경기장 사이의 짧은 이동거리와 수송 및 숙박시설, 높은 국민 지지도에도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IOC는 평창에 대해 개폐회식 예산이 다소 적고, 알파인 경기장 관객 수용능력이 부족한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평창의 강력한 경쟁 도시인 뮌헨은 강력한 재정적 지원 아래 문화와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 기존 시설을 골고루 활용해 과다한 재정 지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비싼 호텔 숙박비용과 일부 경기장에 대한 토지 미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선DB

지난 5월 3일 경기도 안양빙상장에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평창'이라고 써있는 모형 아이스하키 퍽 앞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원'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IOC 보고서 후보 도시별 핵심사항 비교

	평창	뮌헨	안시
비전과 콘셉트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 기대, 국가·지역의 강력한 지지	풍부한 스포츠 대회 개최 경험. 주민 지지 확보가 관건	게임 플랜이 도시계획과 부합. 개폐회식 운영상 어려움 예상
경기장	매우 콤팩트, 접근성 뛰어남	토지 미확보된 경기장 대안 필요	미확보 부지로 건설 일정 우려
선수촌	잘 정리된 개념 제시	구체적인 면이 떨어짐	선수촌 4개로 분산
숙박	경쟁력 있는 가격	호텔 요금 비싼 편	재정적 어려움 우려
안전	충분히 안전한 환경	테러 위험 낮음	불안요소 적어
환경	날씨 상태 만족	평균기온 만족	혁신적인 환경 계획
재정	정부의 지원 확신	정부 지원 충분	예산 합리적 반영
지역주민 지지도	92%	53%	63%
국민 지지도	87%	56%	62%

안시는 유치위가 제시한 일부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며, 선수단 수송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는 등 3개 후보도시 중 개선해야 할 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양호 평창 유치위원장은 "평창이 한국 최초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IOC 평가단이 보고서를 통해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IOC로부터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공인 받은 평창이 올림픽 개최지 결정의 분수령이 될 후보도시 테크니컬 브리핑에서 총력전을 펼친다.

투표권 가진 IOC위원 상대 마지막 홍보전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후보도시 보고서를 바탕으로 5월 18~19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후보도시 테크니컬 브리핑에서 프레젠테이션과 전시룸 홍보를 통해 평창의 강점과 명분을 IOC위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도시별로 6명씩 지정된 공식대표단은 5월 18일 오전 9시15분부터(현지시간) 프레젠테이션을 45분간 하고, 이어 IOC위원들과 45분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평창 공식대표단에는 유치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피겨여왕' 김연아를 비롯해 김성환 외교부장관, 조양호 유치위원장, 박용성 KOC 위원장, 나승연 대변인, 이병남 평가준비처장 등이 소속되어 있다.

이건희·문대성 IOC위원도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개최도시 수장으로 IOC위원들과 처음 접촉을 하게 된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다음 날인 19일 열리는 후보도시 전시룸 개관 때 IOC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다양하고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시룸에는 대표단과 전문가, 통역사 등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에 방문하는 IOC위원들을 상대로 평창의 개최 당위성과 특장점 등을 설명한다.

김연아는 테크니컬 브리핑에서 후보도시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김연아는 세계선수권대회 일정 때문에 잠시 미뤄뒀던 평창의 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을 본격화한다. 김연아는 오는 7월 6일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가 실시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 총회에서도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후보도시 테크니컬 브리핑은 올림픽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처음이자 마지막 홍보전이어서 사실상 평창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때부터 신설된 후보도시 테크니컬 브리핑은 당시 강력한 후보도시였던 미국 시카고와 일본의 도쿄 등을 물리치고 '다크호스'였던 브라질 리우가 개최지로 결정되는 이변을 연출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릴 123차 IOC 총회에서 IOC 위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된다. G

글·서일호 기자

"프리덤 하우스 '한국 언론 자유보고서' 객관성 없다"

조선DB

한국의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는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객관성이 부족한 지적이란 입장이다. 사진은 한국프레스센터.

최근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프리덤 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대해 "언론 자유가 후퇴해 '부분적 언론자유국'이 됐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석 결과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12일 "프리덤 하우스가 5월 2일자로 발표한 '2011 언론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으나 이는 한국의 언론 자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성명을 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덤 하우스는 '다양한 경로로 언론 자유를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평가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하락한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에 평가와 관련 어떤 질의나 자료 협조 요청도 한 적이 없어 객관적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태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언론 자유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국가'로 꼽으며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30위에서 32위로 2단계가 하락, 부분적 언론자유국이 됐다"고 발표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자유 27단계 올려

프리덤 하우스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미디어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와 공식적인 검열의 증가"라며 "지난 몇 년간 친북한적인 또는 반정부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방송사에 친정부적인 인사를 임명해 경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프리덤 하우스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하락한 이유로 꼽은 기준들이 적절치 않다"며 "특히 현재 한국에는 언론에 대한 검열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자유를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평가기준이 엇갈리고 있다"며 객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자유도를 평가하면서 전년보다 27단계 상승한 42위로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평가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정부로부터 미디어정책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 언론자유도를 상향 평가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프리덤 하우스에 유감 표명을 하고 한국 언론 자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성과를 담은 정책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사용한 '센서십(censorship)'이란 표현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사전검열'을 의미한다"며 "프리덤 하우스는 이전에도 한국의 언론 상황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최근 IPTV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과 인터넷 실명제, 게시판 실명제 등이 언론자유가 축소됐다고 본 이유가 된 듯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이란 특수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도 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

글·박경아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정부대표민원전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 업무를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대구로… 대구로 달려온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 27일~9월 4일)의 최종 리허설이 될 2011 대구국제육상대회가 지난 5월 12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16개 종목(남녀 각각 8개, 트랙 10개·필드 6개)으로 나눠 결승(파이널) 경기로만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번 대구국제육상대회는 지난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월드 챌린지 리그(World Challenge League) 승격 후 두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해외 초청 선수 등 2백여 명이 출전해 경기장을 후끈 달궜다.

육상 슈퍼스타 우사인 볼트 등 자메이카 선수들이 자국 대회 출전 관계로 불참했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종목별로 세계 육상계를 주름잡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남자 110미터 허들·여자 200미터·여자 높이뛰기에서 시즌 최고 기록이 나왔다.

남자 세단뛰기의 한국 기대주 김덕현(26·광주시청)은 16미터9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세번째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5월 19일을 기해 D-10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글·서일호 기자

조선DB

조선DB

연합

1 남자 110미터 허들에서 미국의 데이비드 올리버(가운데)가 13초14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 여자 1500미터에 출전한 선수들이 힘차게 트랙을 돌고 있다.

3 세단뛰기 결승에서 한국의 김덕현 선수가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김 선수는 16미터9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 여자 장대높이뛰기에 출전한 한국의 최윤희가 4미터20을 가볍게 넘고 있다.

연합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 조명과 전광판, 음향시설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대구스타디움의 푸른색 몬도 트랙이 눈길을 끈다.

2백2개국 이상 참가 '역대 최대규모'

마라톤 '도시순환형 루프코스' 확정… 입장권 예매도 목표 50% 넘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을 1백여 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하계올림픽·FIFA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이번 대회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대구는 물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킴으로써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 번 '코리아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달리자 함께 내일로(Sprint Together for Tomorrow)'란 슬로건을 내걸고 인간 육체의 힘과 속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이 1백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예비 엔트리를 접수한 결과 IAAF 2백12개 회원국 중 2백2개 나라가 출전 등록을 마쳤으며, 참가 인원은 선수와 임원, 취재진 등 모두 6천여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주요 일정

날짜(요일)	주요 내용
5월 19일(목)	D-100 성공기원 국민대회
7월 1일(금)~8월 15일(월)	최종 엔트리 참가 신청(온라인)
8월 17일(수)	국제방송센터(IBC), 메인프레스센터(MPC) 개관
8월 20일(토)	선수촌 개촌
8월 26일(금)	전야제(대구 두류공원)
8월 27일(토)	개막식(대구 스타디움)
8월 27일(토)~9월 4일(일)	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3대 스포츠 이벤트로 코리아 붐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15일 최종 엔트리가 마감되는 만큼 IAAF 회원국 중 예비 엔트리를 제출하지 않은 10개국 가운데 몇 나라는 더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그간 역대 최대 규모 대회로 꼽히던 2009년 베를린대회(2백2개국 참가)를 능

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AAF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돼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남녀 육상 선수들이 47개 종목(남자 24개, 여자 23개)에서 기량을 뽐내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 2007년 3월 대회 유치에 성공한 이후 조직위원회를 결성해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하여 도심을 통과하는 로드레이스코스, 연습장인 시민운동장과 선수촌 연습장, 선수촌 조성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준비해 왔다. 단일 종목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1983년 헬싱키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으며, 이번 대구대회는 제13회 대회다.

이번 대회의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은 조명과 전광판, 음향, 트랙 등 시설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으로 교체와 보강공사를 했다. 그라운드 조명등 수를 2백20개 늘려 총 6백60개로 증설했으며, 조도는 종전 1천2백50룩스에서 2천2백50룩스로 상향해 IAAF 기준(1천8백룩스)보다도 더 밝게 설치했다. 기존 2개의 전광판도 약 1.5배 크기로 규모를 키우면서 낮 동안에도 화면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선명도를 높였다.

마라톤은 '도시 순환형 루프코스' 확정

앰프와 스피커 등 음향설비도 지난해 8월 새로 설치해 명료도를 종전 0.49에서 0.66으로 크게 높임으로써 관중석에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정도로 개선했다.

마라톤 코스는 지난 2008년 6월 마라톤코스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점이자 결승점으로 하는 '도시 순환형 루프코스'를 채택해 IAAF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했다.

주경기장 시설 이외에도 선수촌과 미디어촌, 선수촌 연습장, 그리고 미디어 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들도 제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주경기장에서 7분 거리의 금호강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자사업으로 3천5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건립했으며, 오는 8월 20일 개촌 행사를 갖는다.

입장권 판매는 지난해 8월 27일(D-365)에 판매대행사(sports.interpark.com)를 선정했으며, 지난 4월 30일까지 목표(45만석)의 53.6퍼센트인 24만3천1백20석에 대한 예매신청을 받았다.

입장권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daegu2011.org)와 입장권판매대행사, 대구시, 대구은행(전국지점), 콜센터(1544-1555)와 GS25 편의점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544-1555 www.daegu2011.org
입장권 판매 sports.interpark.com

조해녕 대구세계육상선수권 조직위원장

"세계인에게 감동 주는 명품대회 만들겠다"

"이번 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끌어올리고 대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조해녕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 개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 국가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구가 '아시아의 육상 메카'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 조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대구 지역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5조5천8백76억원의 생산유발 ▲6만2천8백41명의 고용유발 ▲2조3천4백6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새로 단장한 경기장과 육상진흥센터, 새로 정비된 마라톤 코스와 같은 도시 인프라 등은 당장 눈에 띄는 경제적 유산"이라며 "게다가 최소한 세계 80억명(연인원) 이상이 TV를 통해 이번 대회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대회를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면 지역 산업육성 토대 구축이란 간접적인 효과도 막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래스원' 몬도 트랙은

반발탄성 좋아 '기록제조기'로 높은 명성

'기록제조기'로 불리는 몬도 트랙이 이름값을 했다.

지난 5월 12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트랙 9종목 경기에서 53명의 선수들이 개인 최고기록 또는 시즌 최고기록을 작성했다. 또 대회기록도 2개가 나와 몬도 트랙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는 것이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의 평가다.

대구스타디움은 기존의 우레탄 재질의 트랙 포장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권장하는 몬도 트랙으로 교체해 지난해 12월 공사가 완공됐다. 색상을 파란색으로 하여 선수에겐 집중도를 높이고 시원한 느낌의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국제공인 1등급인 '클래스원(Class-1)' 인증을 받았다.

이탈리아 몬도사가 개발한 몬도 트랙은 반발탄성이 좋아 기록 향상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수들의 스파이크가 기존 트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밀리지 않으며, 디딤발에 주어지는 압력을 최소화해 단거리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대구스타디움에 사용된 트랙은 몬도 트랙 중 최고 사양이다.

남자 육상 1백미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

여자 장대높이뛰기 세계 1인자 옐레나 이신바예바.

볼트 · 이신바예바 '세계 별들의 행진'

2인자들은 '달구벌 반란' 노려… 국내 선수들 선전도 관심거리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세계 육상스타들의 잔치가 될 전망이다. 남자 1백미터 세계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와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 등 육상을 잘 모르는 이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의 모습을 대구에서 만날 수 있다. 또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육상의 미래를 위해 달리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땀방울도 빛나게 될 것이다.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남자 1백미터),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에티오피아·남자 마라톤), 케네니사 베켈레(에티오피아·남자 5천미터,1만미터),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여자 장대높이뛰기) 등 현역 세계챔피언을 포함한 2천여 명의 철각들이 금메달 47개를 놓고 혈투를 펼친다. 하지만 이들을 따돌리고 화려한 '반란'을 꿈꾸는 2인자들도 있다.

'육상의 꽃' 남자 1백미터는 세계기록 보유자 볼트와 같은 자메이카 출신인 네스타 카터가 자웅을 겨룬다. 볼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1백미터와 2백미터에서 금메달을 땄다.

볼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에서 1984년 미국인 칼 루이스 이래 단일 올림픽에서 1백미터와 2백미터 달리기, 4백미터 릴레이에서 우승한 첫 선수이자, 3경기 모두 세계신기록(각 9.69초, 19.30초, 37.10초)을 세운 첫 선수가 됐다.

여자 1백미터 미국의 카멜리타 지터 눈길

볼트에 필적할 만한 선수로 꼽히는 카터는 9초78로 2010년 시즌 최고기록 보유자다. 지난해 8월 이탈리아 리에티에서 열린 월드챌린지 대회에서 1백미터를 9초78로 끊어 1위를 차지했다. 현역선수론 볼트(9초58)와 타이슨 가이(미국·9초69), 아사파 파월(자메이카·9초72)에 이어 4번째 기록이다.

남자 1백10미터 허들은 미국의 데이비드 올리버가 우승 유력후

조선DB
남자 마라톤 비공인 세계 기록 보유자인 제프리 무타이.

조선DB
한국 마라톤의 희망 지영준.

보다. 2008년 올림픽에서 다이론 로블레스(쿠바)가 12초87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의 기록'일 뿐이다.

남자 마라톤은 '비공인 세계신' 무타이 주목

허벅지 근육통과 허리부상 등에 시달리는 로블레스는 이후 별다른 기록을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치고 있다. '황색탄환' 중국의 류샹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1백10미터 허들 결승레이스를 기권한 뒤 트랙에서 멀어졌다. 이들이 주춤하는 사이 랭킹 3위 올리버가 무대를 평정할 기세다. 그는 지난해 국제육상연맹(IAAF)이 주최한 다이아몬드리그에서 다섯 차례나 1위로 골인해 지존의 자리를 꿰찼다.

여자 1백미터에서는 미국의 '단거리 자존심' 카멜리타 지터가 눈길을 끈다. 그의 최고 기록은 2009년 상하이 그랑프리대회에서 세운 10초64. 현역선수론 랭킹 1위다. 남자 1백미터의 볼트에 비견될 정도로 2위(10초73)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있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살아있는 신화' 이신바예바와 '2인자' 미국의 제니퍼 스투친스키(미국)가 또 한 번 29세 동갑내기간의 세기의 대결을 펼친다. 이신바예바의 세계 최고기록은 5미터6센티미터, 스투친스키의 최고기록은 4미터92센티미터로 14센티미터 차이가 난다.

하지만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이신바예바가 지난해는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 아웃을 선언하면서 스투친스키에게 기회가 왔다. 11개월간의 공백을 딛고 이신바예바가 지난 4월 다시 실내무대에 두 차례 복귀했지만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이에 반해 스투친스키는 지난 4월 26, 27일 이틀간 열린 미국 실내육상 선수권대회에서 4미터86센티미터를 뛰어넘었다. 이는 2009년 자신이 세운 미국 실내 최고기록을 3센티미터나 초과한 것이다.

마라톤은 남자의 경우 작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3분2초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운 케냐의 제프리 무타이를 주목해야 한다. 종전 세계 최고기록은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에티오피아)가 200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3분59초. 무타이는 게브르셀라시에의 기록을 3년 만에 무려 57초나 앞당긴 '폭풍의 레이스'를 선보였다.

한국은 지영준·임은지 활약에 기대

1백18명(선수 82명, 임원 36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한국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마라톤 금맥을 캐낸 지영준(코오롱)이 메달에 도전한다. 국내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오랫동안 강자로 불린 최은희를 비롯해 임은지의 기록에도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 G

글·이호준 (매일신문 스포츠레저부 기자)

달구벌은 미소친절·친환경 녹색물결

자원봉사단 발대식에 이어 마라톤코스 따라 꽃단장에 한창

대구시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대구시민들은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경기장 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민 서포터즈와 자원봉사단의 손길, 그리고 미소친절 대구운동으로 대구가 품격 있는 도시, 글로벌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8월 열리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제육상경기대회가 열린 5월 12일 대구스타디움에서는 식전행사로 서포터즈 합동발대식이 열렸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에서 민간외교 역할을 하고 각국 선수단을 지원할 시민 서포터즈를 결성했다. 시민 서포터즈에는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대학동아리, 일반시민 등 국가별로 50~2백명씩 1만7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국가에 대한 응원, 안내, 환영행사 등을 맡게 될 시민 서포터즈는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시민 서포터즈는 2003년 열린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각국 선수단에 큰 감동을 안겨주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서포터즈 합동발대식과 함께 열린 '자원봉사 치어리더'들의 무대공연에 참가한 장용(23·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씨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 결정을 보고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3년째 치어리더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가 대구의 문화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의 친절미소

'대구의 행복에너지'를 표방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지난해 5월 발대식을 가진 자원봉사단은 5월 12일 현재 6천6백7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무 및 소양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초

자원봉사자의 친절과 미소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으로 이끌 또다른 힘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활약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5월 12일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도 서포터즈 합동발대식을 열었다.

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환경청결 봉사를 주로 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유학생을 중심으로 1백여 명의 외국인 봉사단을 구성, 대구를 찾는 외국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2011대회를 앞두고 대구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회단체, 각 공공기관은 연초부터 협력해 '미소친절 대구운동'을 추진 중이다. 미소친절 대구운동은 ▲공무원 미소친절CS(고객만족) 운동 ▲구·군, 기관·직능단체 미소친절 운동 ▲시민 미소친절 운동 ▲학생 미소친절 운동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미소친절 붐 조성 등 세부 과제를 정해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백명으로 결성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은 관공서, 대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며 분기 1회씩 정례회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친절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미소친절 붐 조성을 위해 시 홍보전광판과 지하철 등에 미소친절 표어를 게시하고 분기별로 '시민 미소친절 왕'을 선발해 시상도 한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마스코트인 '살비' 캐릭터 인형 주변에 모인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라톤코스 등 주요 거리에 대한 꽃단장도 한창이다. 대구시는 9월까지 마라톤코스, 대구스타디움, 선수촌, 시가지 주요 도로에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상가번영회, 아파트주민협의회와 지역주민들이 거리 및 내 집 앞에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대구수목원에서 생산한 79만5천 포기의 꽃을 74개 노선에 심을 계획이다.

대구를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특히 마라톤 경기는 TV 생중계를 통해 도시 이미지가 전 세계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점을 고려해 도심을 통과하는 42.195킬로미터 마라톤코스 등 주요 거리를 꽃으로 장식하고, 마라톤코스 주변 건물 옥상에도 나무와 꽃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는 시가지 주요 교량인 수성교, 상동교, 아양교, 팔달교 등 11개소에는 교량꽃벽, 선수단이 들어오는 대구공항, 동대구역 광장에도 꽃 조형물을 설치했다. 스타디움광장과 선수촌에는 대회를 상징하는 꽃 조형물을 설치해 선수단과 방문객을 위한 포토존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종각네거리와 국채보상로, 들안길, 동대구로, 수성로, 청수로, 달구벌대로, 중앙대로 등 13개소에는 6만8천 포기의 꽃이 담긴 꽃바구니를 가로등에 장식한다.

대구시는 또 이번 세계육상대회를 '친환경 녹색대회'로 열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경기장 주변 및 주요 관문도로변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육상대회 참가선수들이 맑은 공기속에서 달릴 수 있도록 96억원을 들여 시내버스와 청소차 1백84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고, 경유차 1천7백2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또 26억원을 들여 지하철 1호선 15개 역사의 노후된 환기시설을 7월말까지 개체해 도시철도 지하역사의 공기질도 개선한다.

아울러 도로에는 버려지는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해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사업'을 3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고압살수·세척차량 16대를 주요 간선도로에 운행해 도로먼지를 줄이고 있다.

대구시는 세계육상대회 참가를 위해 대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무선 인터넷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백15개 지역에 오는 7월까지 와이파이(Wi-Fi)존을 구축한다.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과 선수촌, 대회 공식 지정호텔과 동대구역 등 주요 교통시설, 마라톤코스, 권역별 주요 관광지 등에 서비스존을 구축해 무선인터넷의 편의를 제공한다.

세계육상대회 개최기간 동안에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역대 최고의 친절대회, 친환경대회로 성공시켜 대구는 물론 한국의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G

글 · 이춘수 (매일신문 사회1부장)

기획특집

청년창업
가자! 세계를 향해

'벤처 한류'를 향한 장정이 시작됐다.
좁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거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벤처 창업, 다시 말해 '글로벌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해외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등 기술을 내세운 창업을 유도한다.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장한다.
규제를 완화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문을 넓힌다.
정부의 구상은 종전 소수의 모범사례가 예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큰 길'로 만드는 것이다.

일러스트 · 이철원

해외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창업'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세우고 글로벌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창업, 벤처붐 이을 '제2엔진' 켜졌다

중소기업서 단숨에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태생적 글로벌 기업' 속속 등장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주장했다. 창업과 도전정신은 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는 '대동맥'이다.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가 여기서 비롯된다. 최근에는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향하는 창업이 속속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창업시장의 2번 엔진이 켜진 셈이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지문인식 분야 부동의 1위인 슈프리마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많은 국제인증과 세계대회의 평가를 통해 슈프리마의 브랜드를 알려 왔으며, 이는 곧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최상의 기술을 바탕으로 최대의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 슈프리마 사장의 각오에는 자신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난해 말 지문인식 기업인 슈프리마가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인 FVC(Fingerprint Verification Competition)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때의 소감이었다. 슈프리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좁은 국내시장보다 드넓은 글로벌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져 성공한 '글로벌 창업'의 대표 기업이다.

IT혁명 · FTA확대 … 무르익는 글로벌 창업 환경

슈프리마와 같은 글로벌 창업 기업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함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태생적 글로벌(Born Global)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와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IT혁

명으로 거래비용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도 단숨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됐다. 실리콘밸리의 게임업체인 징가가 페이스북을 활용해 창업 4년 만에 8억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시장이 통합되고 있는 추세도 '태생적 글로벌 기업'의 요인이다. 자본과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도 중요한 변화다. 대기업들이 부품조달을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로 확대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부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의 출발 시점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해외시장 매출 증가와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글로벌 환경변화로 생성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의 약점과 비교우위를 고려한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태생적 글로벌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맞춰 '글로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해 애플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창업 열기 해외로 확산 위해 정부 발빠른 대응

이번 정부의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돼 온 '청년·기술 창업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시행해 왔다.

먼저 자금지원 폭을 넓혔다. 2008년 6천4백억원이던 창업자금을 올해 1조4천억원으로 확충했고 청년과 기술창업의 특례보증을 도입했다. 창업환경도 개선했다. 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해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택창업 시스템을 구축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의 창업 활성화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신설법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08년 5만 개 수준이던 것이 2010년엔 6만 개를 돌파했다.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창업이 2010년 전년대비 29퍼센트나 증가해 관심을 모았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도 1만5천 개 남짓에서 2만5천 개로 늘어 창업시장의 활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은 국내에서 번지고 있는 창업열기를 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국내시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해외로 눈을 돌리자는 것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

"창업 리스크 사회분담 시스템 먼저 갖춰야"

조선DB

"많은 와튼스쿨 동기들이 금융권을 선택했습니다. 보수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금융위기 탓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안정과 전망을 진로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떤 길이 자신에게 더 의미가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는 자타 공인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리더다. 최근엔 기업가정신 전도사로 나서 젊은이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알리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안 교수는 기업가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안 교수는 오는 6월 1일 카이스트를 떠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창업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 창업이 맞다고 생각되면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교수는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도 당부를 잊지 않는다. 자신의 아이템과 같은 업종에 취업해 경험을 쌓거나 공동창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요긴하다. 돈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사명감'을 가지라고 주문한다.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5~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돈만 좇는 사람들은 3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면 돈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무게를 두는 경우는 더 오래 버티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안 교수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무엇보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그는 역설한다. 창업의 리스크를 개인 혼자 전담하기보다 사회가 분담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리콘밸리를 성공의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의 요람이죠. 성공하는 기업은 백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1번의 성공보다 99번의 실패가 사회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실패를 용인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미래나노텍은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광학필름 시장을 석권했다. 김철영 사장(왼쪽 두 번째)이 자사의 광학필름을 펼쳐 보이고 있다.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세계의 벽 넘어

글로벌 마인드로 시장의 정확한 수요 파악이 성공의 디딤돌

글로벌 창업은 문구만 요란하고 속은 빈 강정이 아니다. 이미 성공 사례가 여럿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세계 속에 우뚝 선 경우도 있고 아예 해외에서 창업한 경우도 있다. 이들의 성공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도전'이었다.

글로벌 창업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미래나노텍과 크루셜텍처럼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한 경우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타고 해외로 뻗어나간 경우도 있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과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간판주자인 카카오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들도 있다. 낯선 곳이지만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간파한 것이 성공의 디딤돌이 됐다. 라오스의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코라오와 세계 IT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비키가 그렇다. 한국에서 키운 경험과 안목을 세계 시장에 접목한 것이 주효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된 셈이다.

김철영 미래나노텍 사장
광학필름 시장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1등

미래나노텍은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중 하나다. 2002년 창업해 올해 열 살이 된 어린 기업이지만 역량은 이미 세계 수준이다. 3M이 장악하고 있던 광학필름 시장에 도전해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어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액은 설립 7년차인 2008년에 성공한 벤처기업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1천억원 고지를 돌파했고 2년 후인 지난해엔 그 3배인 3천억원에 육박했다. 이 속도라면 회사의 목표인 '2013년 매출 1조원'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나노텍의 성공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앞선 기술력이다. 이 회사는 창업 2년 만인 2004년 UTE(Utility Enhancement Sheet)라고 불리는 광학필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UTE는 LCD BLU에 쓰이는 부품으로 여러 장의 광학필름을 통합한 제품이다. 그 결과 광학필름의 소비량과 전력소비량, LCD 두께를 줄일 수 있었다.

김철영 미래나노텍 사장은 "국내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를 비롯 일본의 샤프와 소니, 대만의 AUO와 CMO, 중국의 BOE와 IVO 등 메이저 패널사들에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거래선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사장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시장과 제품을 다변화해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올해엔 반사율이 높은 LCD용 광학필름, 대형 LED TV용 도광판, 대형 터치모듈 양산을 위한 대규모 신규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추격자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부품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안건준 크루셜텍 사장
'스마트폰용 마우스' 아이디어로 독보적 기술 확보

크루셜텍은 가장 주목받는 부품기업 중 하나다. 옵티컬 트랙 패드(OTP)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OTP시장의 9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OTP는 쉽게 말해 스마트폰용 마우스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이 기술을 장착한 모델이 흔치 않아 친숙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누적 판매 대수가 1억 대를 돌파했다. 주문량 증가에 맞춰 올해는 생산능력을 월 1천만 대에서 3천만 대로 대폭 늘일 계획이다.

매출액은 2009년 6백22억원에서 2010년 2천80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70퍼센트가량 성장한 3천5백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3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준 크루셜텍 사장이 창업을 한 것은 서른여섯 살이던 2001년의 일이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삼성전자의 연구원직을 버리고 벤처기업행을 택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OTP는 PC의 마우스를 휴대전화로 옮겨 보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간단한 구상이었지만 개발 기간이 4년이나 걸렸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기한 기술이었다. 중소기업으로서 개발비

조선DB

안건준 크루셜텍 사장(왼쪽 세번째)은 독보적인 스마트폰용 마우스 기술로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세계시장점유율이 무려 90퍼센트에 이른다.

를 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170여 건의 특허로 보호받는 독보적인 OTP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크루셜텍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OTP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데다 이 시장에서 크루셜텍의 위상이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블랙베리를 생산하는 RIM사를 포함해 삼성전자, LG전자, HTC, 모토로라, HP 등 주요 스마트폰 메이커와 거래하는 등 매출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이다.

김정주 넥슨 회장
게임 현지화로 세계 72개국에 서비스

조선DB

김정주 넥슨 회장은 창업 20년도 안 돼 세계적인 주식부자에 오를 만큼 큰 성공을 거뒀다. 과감한 해외 현지화와 인수합병이 성공요인이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브스〉가 지난 3월에 '2011 세계 갑부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전년에 비해 순위가 상승해 관심을 모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이는 김정주 넥슨 회장이었

다. 김 회장은 595위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넥슨 재팬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 김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넥슨은 엔씨소프트와 함께 국내 게임업계의 양대 산맥이다. 김 회장은 94년 넥슨을 창업한 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를 키웠다.

현재 넥슨은 미국과 일본, 유럽에 해외법인을 두고 전 세계 72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 수는 무려 3억5천만명을 헤아린다. 이에 따라 해외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35퍼센트였던 해외 매출 비중은 2009년 67퍼센트까지 불어났다. 넥슨의 대표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의 경우 한국의 동시접속자가 20만명 수준인 데 비해 중국에선 그 11배인 2백20만명에 달한다.

넥슨이 해외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 때문이다. 요금제도에서부터 마케팅, 게임 요소 등을 철저하게 현지화한 것이 주효했다. 가령 첫 해외법인을 설립한 미국의 경우엔 '게임 내 부분 유료화 모델'을 적용해 조기정착할 수 있었다. 이 요금제는 넥슨이 국내 게임업계에 최초로 도입해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모델이다.

넥슨의 해외시장 개척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차세대 플랫폼과 신흥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한 '메이플스토리 도적편'은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미국 앱스토어 RPG 장르에서 1주일 이상 1위를 지켰고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는 전체 유료 게임 1위에 올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1년 만에 가입자 1천만명… 미·일 등 글로벌 공략 채비

국내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최고의 스타를 꼽으라면 단연 '카카오톡'이다. 출시된 지 1년 남짓한 현재 카카오톡은 가입자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께는 2천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카카오톡을 통해 오고가는 메시지는 하루 2억 건에 이른다.

카카오톡은 한마디로 '스마트폰용 메신저'다. PC웹에서 사용되는 메신저를 모바일 환경에 구축한 앱이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설립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다. 김 의장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설립자로 유명한 벤처업계의 거물이다. 카카오는 김 의장이 2006년 직접 설립한 회사로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카카오톡으로 일어선 기업이다.

조선DB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오른쪽 두번째)은 스마트폰용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개발, 세계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 스마트폰 메신저 시장을 석권한 김 의장의 다음 목표는 세계 시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4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안에 일본과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성공 가능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런 홍보와 판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외 유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해외 가입자는 현재 전체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각각 41퍼센트, 15퍼센트로 비중이 가장 크다. 사용국가는 2백16개국에 달한다. 현재 해외 가입자는 하루 1만명씩 불어나고 있는데 SNS의 특성상 증가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카카오톡의 경쟁자는 페이스북"이라고 말한다. 페이스북이 전 세계 6억명의 사용자에게 50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처럼 카카오톡도 메신저를 넘어 쇼핑, 게임, 영화, 음악, 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호창성·문지원 비키 대표
실리콘밸리서 창업… '동영상 자막서비스'로 주목

지난 1월의 일이었다. 세계적인 IT전문지인 〈테크크런치〉가 매년 유망 벤처기업과 창업자에게 시상하는 '크런치 어워드'에 한국 기업인이 이름을 올렸다. 호창성 비키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크런치 어워드는 세계 IT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저명한 상으로 한국인 수상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키는 동영상의 자막 서비스 사이트다. 비키는 자막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유저들이 동영상을 번역해 자막을 제작한다. 위키피디아처럼 다수의 유저들이 자막을 공동으로 번역하는 '집단 지성' 시스템이다. 부부 사이인 호창성·문지원 비키 대표는 유학 시절 아이디어를 얻어 실리콘밸리에서 2008년 비키를 창업했다.

비키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다. 월 방문자가 4백만명에 이르고 페이지뷰는 1억 건에 달한다. 언어 장벽 없이 해외의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인기 비결이다.

유저들의 구성은 그야말로 글로벌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만큼 미국인이 절반이고 아시아 유저가 30퍼센트 정도다. 호영성 마케팅 팀장은 "비키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창업했다"며 "한국인 유저는 전체의 3퍼센트가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키가 등장하기 전에도 인터넷에 해외 동영상의 자막이 유통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이었다. 자막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도 썩 좋지 않았다. 비키는 이 점에 착안한 사업모델이다. 합법적인 콘텐츠와 편리하게 자막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면 유저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의 유저들이 모였고 수없이 많은 자막이 올라왔다.

성장의 전환점은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였다. 비키는 미국 시장의 판권을 사서 이를 사이트에 올렸고 열성적인 유저들이 신속하게 자막을 올렸다. 콘텐츠가 올라간 뒤 24시간 뒤에 20개 언어로, 48시간 뒤에 40개 언어로 번역됐다.

호영성 팀장은 "비키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4백8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조만간 2차 펀딩도 계획하고 있다"며 "기존의 온라인 사이트를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모바일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DB

호창성, 문지원 비키 공동대표(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미국에서 창업해 '테크크런치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 IT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세영 코라오 회장

중고차로 시작해 금융·유통 등 '라오스의 정주영'

조선DB

오세영 코라오 회장은 중고차 사업으로 시작해 라오스 최대 기업을 일구었다.

오세영 코라오 회장은 '라오스의 정주영'으로 불린다. 라오스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신차와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코라오의 라오스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37퍼센트에 이른다. 자동차뿐만 아니다. 오토바이, 금융, 에너지,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라오스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엄격한 투명경영을 시행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기업'으로 통한다. 2003년과 2004년에는 2년 연속 라오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라오스인들이 외국인이 세운 코라오를 '국민기업'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다.

오 회장이 라오스에서 창업을 결심한 것은 1997년의 일이었다. 한국의 중고차를 팔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당시 라오스에 돌아다니는 차들은 대개 일본산이었다. 하지만 우측통행인 라오스에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일본 차는 불편했다. 불법 개조로 운전석을 바꾸기도 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중고차는 불법개조를 할 필요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시작은 5대였다.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업도 확대해 나갔다. 신차도 유통시키고 오토바이는 직접 생산해 판매했다.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에도 뛰어들었다.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시작한 '인도차이나뱅크'가 그것이다.

라오스에서 성공한 코라오는 동남아시아 기업 최초로 지난해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2020년엔 아시아 톱 10 기업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G

글·변형주 기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앱 개발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신설했다.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는 앱 개발자들이 직접 창업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지원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세종대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청년창업자들이 앱 개발의 출발점인 스마트폰을 들어보이고 있다.

'앱창작터'서 가르쳐 '대박 스타'로 키운다

세종대 등 5곳 선정… 저렴한 임대료·번역 서비스 등 지원 통해 창업 도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앱'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앱 시장은 아이디어가 풍부한 젊은이들의 글로벌 창업을 향한 도전 무대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세종대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에서 해외 시장을 목표로 앱 개발에 힘쓰는 젊은 창업자들을 만나봤다.

올해 세종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를 졸업한 이재훈(26)씨는 요즘 앱 개발에 한창이다. 그가 개발 중인 '펀업(Funup)'은 여러 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앱이다.

이씨는 지난해 세종대 '앱창작터' 안드로이드 기본개발자 과정을 수료했다. 함께 수강하던 3명이 팀을 이뤄 만든 졸업작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우수 앱 시현'을 갖기도 했다. 이씨는 "앱창작터를 통해 평소 관심 있었던 앱 개발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며 "올해는 앱창작터와 연계한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가 생겨, 이곳에 입주한 앱 개발 회사에서 앱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새롭게 문을 연 세종대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에는 이씨처럼 '대박' 앱을 꿈꾸는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있다.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 중 앱 개발 분야를 특화한 새로운 창업보육센터다.

지난해 말, 세종대, 목원대, 조선대, 인하대, 강원대 등 5곳이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로 처음 선정됐다. 올해는 8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앱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앱창작터'를 처음 설립했다. 현재 전국 25개 앱창작터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 같은 앱창작터가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교육지원을 창업으로 연계하는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만든 것이다.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는 기존 앱창작터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서울에선 세종대가 앱창작터와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연계·운영 중이다. 지난 4월 문을 열자마자 7개 업체가 입주했다. 모두 앱개발 회사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 연내 8곳으로 확대

그중 '브로드콘에이치시(BroadCON HC)'는 앱 개발업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자체적인 앱 개발과 함께 퍼블리싱을 통해 앱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앱 퍼블리싱이란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기획 아이디어가 있는 개발자의 앱 개발에 투자를 하고 이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최성희(40) 브로드콘에이치시 대표는 "앱창작터를 다니며 보니 괜찮은 콘텐츠가 있어도 혼자 만들다 보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며 "이런 사람들과 제휴를 맺어, 콘텐츠를 더욱 가다듬어 앱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 디지털콘텐츠학과 이장원(24)씨도 브로드콘에이치시와 앱 퍼블리싱을 맺어 일하고 있다. 지난겨울, 앱창작터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씨는 "지금은 브로드콘에이치시에서 앱을 개발 중이지만 앞으로 직접 창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앱 퍼블리싱으로 브로드콘에이치시는 현재 약 30개의 앱을 출시했다. 개발 앱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다. 최 대표는 "모든 앱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개발하고 있다"며 "아직은 해외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단계지만 올해 43개의 앱을 해외 론칭하고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앱 개발 회사 '둡(dooub)'의 최원석(28) 대표도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다. 미국 유학파인 그는 처음부터 미국을 타깃으로 정했다. 게임 앱 '퍼피네이션(Puppy nation)'이 이달 중순쯤 미국에서 론칭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퍼피네이션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나 아이폰을 이용해 3D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게임"이라며 "페이스북 시장이 큰 영미권을 시작으로 남미권, 동남아권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지난 4월 둡을 창업하며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처음 이용했는데 저렴한 임대료 등 자금적인 지원과 더불어 센터에서 좋은 코멘트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의 이용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도 있다.

"실리콘밸리 같은 수준의 홍보 지원 아쉬워"

브로드콘에이치시에서 근무하는 이재훈씨는 "학교와 기업이 연계한 센터 지원은 굉장히 좋지만 벤처기업이 실패했을 경우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둡에서 일하는 재미동포 손장호(26)씨는 "앱 개발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다"며 "한국에서 창업이 붐인데, 임대료 등 창업 여건은 좋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에 비해 홍보 창구 지원이 약하다. 미국처럼 대기업, 학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돕는 다양한 홍보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G

글·이제남 기자 / 사진·허재성 기자

김용국 세종대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장

"올해 글로벌 수준 스타창업자 나옵니다"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용국 교수는 교내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와 앱창작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앱창작터를 우수하게 운영한 세종대는 서울에선 유일하게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됐다.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에서 사무실 공간을 내주고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운영됩니다.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고 인터넷, 냉·난방, 세콤(보안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센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우수한 인력 제공을 꼽았다.

"센터가 대학 내에 있어 기업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적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대학생들도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양쪽 모두 이득이죠."

센터는 앱 개발을 위한 영어번역 서비스 제공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돕고 있다.

"입주한 업체 둡의 경우 앱 론칭을 처음부터 미국 페이스북에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에서 즐길 수 있는 '징가' 게임의 경우, 월 매출액이 1조원입니다. 둡도 이 같은 매출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교수의 목표는 앱창작터에서 좋은 교육생을 길러내고 이와 연계한 앱 특화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으로 '스타' 창업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둡과 같이 글로벌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올해 안에 1~2개의 '스타' 창업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도전정신' 평가로 창업특기자 뽑아

경기도 유일 창업선도대학에 선정… 5년간 1백50여억원 지원 받아

1만여개의 공장이 밀집한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Korea Polytechnic University)는 경기권 유일의 창업선도대학이다. 한국산업기술대는 내년 입시부터 창업특기자 전형을 실시해 도전정신이 강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한다.

한국산업기술대 기술혁신파크 1층에는 '가족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전시·상담하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의 쟁쟁한 대학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15개 대학을 뽑는 대형 국책과제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3월 선정된 15개 대학은 향후 5년간 1백50여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그 동안 축적해 온 핵심 원천기술과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해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겁니다."

한국산업기술대 최준영(60) 총장의 말이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 대학은 경기권 유일의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곳이다. 최근 창업지원단(단장 나보균)을 공식 발족하고 지역 거점 창업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지난 4월부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육성 ▲기술창업아카데미 ▲지역창업 경진대회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펼쳐 우수한 창업자원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핀오프(Spin Off)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창업지원단 발족… 지역 거점 창업지원사업

내년 입시부터는 창업특기자 전형을 실시해 도전정신이 강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한다. 유망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COOPS 아이디어뱅크'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확보 및 특허 활성화를 지원한다. '즐겁고(fun) 역동적인(dynamic) 경진대회'를 모토로 '서바이벌 창업경진대회'도 추진한다.

나보균 단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창업자원 발굴 외에도 펀드

조성, 마케팅 자금 등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펼쳐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최소 1백 개의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30개 이상의 스타기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창업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한쪽에 자리잡은 지상 18층의 기술혁신파크(Techno Innovation Park)는 시화방조제와 시화호를 끼고 있는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랜드마크다. 이곳 3층부터 5층까지 3개 층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하우스(EH)'란 공간으로 임대하고 있고 7층부터 17층까지는 기숙사가 들어있다.

기술혁신파크 2층에는 고성능 PC 54대를 비롯해서 각종 콘솔 게임기와 조이스틱이 비치된 '게임 테스트베드'가 있다. 24인치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를 장착한 PC 옆에는 위(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3(소니), 엑스박스(MS) 등이 줄지어 놓여 있다.

3천7백여 기업과 '가족회사'로 산학협력

2002년 국내 최초로 개설한 게임공학과의 학생들은 각종 게임 프로그래밍, 캐릭터와 스토리를 창작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교육받는다. 동네 오락실의 아케이드 게임과 3D 기반의 스크린골프 게임도 이 대학 게임공학과를 거쳐 간다.

지난 1997년 옛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와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폴리스를 벤치마킹해 한국산업기술대를 만들었다.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와 울루 테크노폴리스는 노키아와 에릭슨을 배출한 북유럽의 산학 클러스터다.

시화·반월산업단지 소재 기업을 비롯해 전국의 3천7백여 개 기업이 한국산업기술대와 '가족회사'란 이름으로 산학협력과 창업을 진행 중이다. '가족회사'란 개념은 한국산업기술대가 2000년 창안한 산학협력 모델이다. 한국과학기술대와 협력을 원하는 회사들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가족회사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들은 대학으로부터 고가의 실험장비를 빌려 쓴다. 또 해당 분야 교수들로부터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문을 구하고 있다. 대신 학생들은 방학 동안 가족회사에서 실습을 한다.

실습 참여 업체 CEO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들을 선발해 일본, 중국 등 해외 산업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실습 효과는 취업률로 증명된다. 지난해 73.1퍼센트의 정규직 취업률을 기록해 졸업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에 올랐다.

기술혁신파크 1층에는 '가족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돼 있다. 가족회사의 장점이 입소문을 통해 퍼지자 그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출범 당시 2백73개에 그쳤던 가족회사는 작년 말 3천7백57개에 달했다.

일부 가족회사들은 아예 한국산업기술대 내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기술혁신파크의 3층부터 5층까지 3개 층을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하우스(EH)'란 공간으로 임대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기업, 교수진, 학생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다. 엔지니어링 하우스 입점 업체들은 전담 교수와 학생이 각종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웅세 한국산업기술대 학생처장은 "기술혁신파크 내에는 은행, 서점, 푸드코드, 헬스클럽, 호프집, 세탁실, 미용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외부로 나가지 않고 24시간 창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 G

글·서일호 기자 / 사진·이경민 기자

최준영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알제리서 대학설립 요청… 양국 펀드 조성

"알제리 대표단이 한국에 와서 여러 대학을 둘러보고 우리에게 대학 설립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알제리 정부는 50 대 50으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한국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았고 학교 근처에는 한국 중소기업도 진출합니다.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 파견합니다. 5월 24일 양해각서(MOU)를 맺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의 글로벌 창업의 지휘봉을 쥐고 있는 최준영 총장은 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에 첨단기술 분야의 학위과정과 산학협력 기능을 가진 '첨단기술 아프리카 센터'를 수출한다고 했다. 최 총장은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공대생들의 세계화는 산업계 중심의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대학 및 산업현장 견학, 해외 인턴십 참여, 해외 프로젝트실습 파견 등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국제 감각을 높일 수 있는 세계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국제화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미국, 영국 등 14개국에 1백32명의 재학생들을 파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는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사업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실 산하 국제협력팀을 '국제교류원'으로 분리 승격시켜 국제교류사업 및 유학생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일자리 · 성장동력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해외 블루오션 개척' 위해 유관 부처 함께 청년기업가 정신 로드쇼

G20세대의 글로벌 마인드와 창조적 유전자를 결합한 '글로벌 청년창업'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를 기대케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지원제도, 자금지원, 제도 개선들을 통해 G20 세대,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해외 현지 창업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창업에 뛰어드세요."

지난 5월 9일 오후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청년기업가정신 로드쇼'에 참석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청년기업가정신 로드쇼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15개 창업선도대학이 공동 추진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모두 15차례(5·6월 10회, 9·10월 5회) 창업선도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대에서 열린 첫날 행사에는 창업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예비 창업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기업가정신 로드쇼는 지난 4월 29일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에서 나온 것이다. 이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여러 유관부처가 마련한 '해외 블루오션 개척' 전방위 지원책이다.

맞춤 교육

청년창업 · 기술창업 활성화

먼저 해외봉사·인턴 등 '글로벌 경험자'들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과 교류·협력이 활발한 대학을 지정해 '해외창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례로 한동대는 올해 '글로벌 에디슨 아카데미'를 통해 80여 명(외국인 유학생 포함)의 청년에게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시행한다.

해외 경험이 많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회의 장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글로벌 창업 전초기지로 특성화한다. 올 12월부터 예비창업자들이 현지 언어·문화·법률 등 1년 과정의 집중 훈련을 받게 된다.

2000년 전후 벤처 붐을 주도했던 정부출자연구소 연구원들의 창업도 지원한다. '휴·겸직 창업 대상'을 정부출자연구소로 확대해 복귀 시 휴직 당시의 직급 등을 보장한다. 특히 대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원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전(全)주기 종합 지원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대덕특구에는 공공연구기관 석·박사급 연구 인력의 약 65퍼센트인 1만5천여 명이 밀집돼 있다.

이 밖에 '글로벌 앱 지원센터'와 국내 앱 개발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며, 첨단기술 보유국과 교류협력을 통한 기술창업 촉진도 추진된다. 한국산업기술대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국립정보기술·기계·광학대(ITMO)로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 대학 내 예비 기술창업자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한·이스라엘 공동펀드가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기업의 해외 지원 강화

창업기업의 해외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중소기업청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KOTRA·재외공관·한인 네트워크·수출비즈니스인큐베이터(BI·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이 결성한 '글로벌 지원기관 협의체'를 통해 '원스톱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도 지원한다. 창업팀을 미국 벤처캐피털(VC)이 운영하는 실리콘밸리 소재 비즈니스인큐베이터에 입주시켜 창업 준비와 마케팅 활동을 돕게 된다. 또 지금까지 국내 중소업체들이 인력, 정보 등의 부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온 미국 중소기업혁신지원(SBIR) 프로그램 참여도 지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빅텍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현지 법인 설립, 제안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SBIR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돼 1단계로 약 1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됐다. SBIR 프로그램은 미 연방정부가 기술개발 자

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돕는 제도이며, 1~3단계로 나뉘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다.

단독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덜기 위해 '협력형 글로벌 시장 개척 모델'이 개발된다. 주요 업종과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 이들이 함께 전략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선배기업'과 창업기업 간 '비즈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올해 예산 36억원이 편성됐다. 선배기업이 창업기업을 위해 바이어 발굴과 정보 제공, 구매 협상 지원 등 멘토링을 해주는 사업이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저녁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대화는 대통령이 학생들의 취업과 공부에 대한 고민을 듣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창업기업의 성장 패스트 트랙(Fast Track) 구축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주요 애로 사항은 해외시장 개척, 자금조달 순이다. 또 해외진출 기업의 29퍼센트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경험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창업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창업기업 육성자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3천억원이 늘어난 1조4천억원으로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청년전용 창업자금'이 신설된다.

엔젤(개인투자자)의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엔젤투자 시 출자 지분 의무보유기간을 2년 단축(5년→3년)하고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투자금액의 10퍼센트→30퍼센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벤처캐피털을 통한 창업기업의 보육과 투자가 활성화된다. 벤처캐피털의 투자기능을 '창업보육센터(BI)' 운영에 연계하고, BI 입주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대학이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청년 창업기업 전용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에서 최고 70퍼센트를 매칭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기업의 글로벌 지적재산권 획득과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11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창업기업 등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적대산권 획득전략을 세우며 해외특허 출원을 지원한다. 또 맞춤형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외 IP-Desk(지적재산권 보호센터)'를 신설해 글로벌 진출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기능을 강화한다.

부담 쏙↓

창업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창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수도권 내에서 '도시형 공장'을 설립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세가 공장취득금액의 8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줄어든다.

또 연구원 등이 휴·겸직 창업 후에 완성한 직무발명의 경우 해당업체 주식의 보유·거래에 제한이 없도록 명문화한다(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 시 반영).

기업가정신재단과 창업선도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기업가정신 로드쇼'를 개최해 창업 붐을 조성하고 대학·벤처캐피털 자매결연, 멘토링, 투자상담회, 창업경진대회 등을 함께 개최한다.

이 밖에 연구기관 등의 기술창업 촉진체계를 마련한다. 정부출자연구소 등의 기관평가 시 중소기업 배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실적을 추가한다. 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매년 1회)하고 '창업지원 우수기관 순위'를 공표한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중소기업청 ☎1357 www.smba.go.kr

"실패를 겁내지 마"… 청년들 도전에 박수

도전을 권유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세계적 경쟁력 이끌어

구글 최고경영자였던 에릭 슈미트가 '창업자에게 미국 다음으로 최고의 장소'로 꼽은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벤처·창업의 천국'이라 불린다. 핀란드 역시 IT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보유, 글로벌 청년창업 관련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국이다.

일러스트·남동윤

이스라엘 | 전방위 인큐베이팅 시스템

돈 걱정 없는 '창업 천국'… 나스닥 상장도 정부서 도와

이스라엘은 '창업 천국'이다. 나스닥 상장기업만 60여개에 달할 정도로 벤처캐피털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다. 한 해 동안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수는 유럽 전체 창업 벤처 수보다 많을 정도다.

작년 하반기 이스라엘 신드롬을 일으켰던 책 〈창업국가〉(댄 세노르·사울 싱어 지음)의 번역자 윤종록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전 KT 부사장)은 이스라엘을 두고 "'두뇌의 밭'에 '하이테크'를 경작하는 국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벤치마킹할 게 남은 나라"라고 단언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말 후츠파(chutzpah)는 '주제넘고 뻔뻔하고 공격적이고 오만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도전적이고 대담하고 당돌하다'는 뜻과 함께 '놀라운 용기'라는 긍정의 의미도 담겨 있다.

윤 연구원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많은 우리가 우선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 바로 그 '후츠파'"라고 설명한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주제넘고 뻔뻔하며 도전적이고 도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패를 용인하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을 도전하게 한다.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청년 창업가들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이스라엘은 지식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국방의 의무를 하는 동안에도 기업가 정신을 훈련한다. 명령과 복종 체계가 아닌, 이스라엘 군대에는 작전만 있을 뿐 작전 수행은 군인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정부 조직이 분명히 달라야 함을 인식하고 부총리가 모든 것을 하나의 부처에서 종합 관리한다. 이스라엘은 부총리 산하에 최고의 과학기술집단으로 구성된 수석과학관실 OCS(Office of Chief Scientist)을 두어 지식 자원을 육성하고 있다.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왕성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인큐베이팅센터는 해외 전문기업과 제휴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창업가들이 사업 파트너 탐색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할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조선DB

핀란드 옴니아 직업학교 목공과 학생들이 유명 가구 디자이너와 함께 가구를 만들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때부터 직업 체험 교육을 한다.

벤처캐피털들이 인큐베이팅센터를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자금조달, 투자펀드 조성, 예비창업자 선정 등의 업무에도 직접 참여한다. 정부가 자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기술지원, 나스닥 상장까지 종합적으로 돕는 것이다.

핀란드 | 산학관 융합형 창업보육
첨단과학기술단지서 아이디어·사업아이템 창출

핀란드는 인구 5백31만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2010년 EIU(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부설 경제분석 기관)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산업 국가경쟁력 부문 4위를 차지하는 디지털 강국이다.

김진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산학관 융합형 창업보육'과 '대규모 사이언스 파크에 대한 지원'이 핀란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핀란드에는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등 20개 이상의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조성돼 있다.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에서는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어우러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창출해 낸다.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사이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이 첨단기업 창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신제품 생산으로 연결돼 첨단 산업의 집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특히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는 최대 창업보육센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8.1퍼센트 점유율을 자랑하는 노키아 글로벌 본사를 비롯해 첨단기업과 연구중심대학인 알토대학, 각종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알토대학은 헬싱키공대,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 헬싱키경제대학을 합쳐 설립한 곳으로 핀란드 IT산업 소프트웨어 부문의 핵심인력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이언스 파크 등 과학기술단지에선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고 인턴 프로그램과 기업 공동프로젝트 등이 잘돼 있어 미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는 '학생 창업, 청년 창업의 산실'로 통한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이 특별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으로 핀란드는 자국 내 인재들은 물론 해외 인재들도 그러모으고 있다. 일반 연구원들의 창업활동은 더욱 활발하다.

핀란드 국가기술연구센터인 VTT의 경우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창업해 나가는 인력이 연간 5~10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도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창업 활성화를 돕는다. 핀란드 사회 전반에는 창업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툭하면 연대보증 '발목'… 실패 땐 생계 걱정

청년세대의 기업가 정신 살릴 수 있게 창업정책도 창조적 발상 필요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청년 창업은 '글로벌 대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IT 창업의 신(新)물결'에서 소외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의 창업 열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들에게 그저 몸을 던지라 하기엔 위험이 크고 기회와 지원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마치 '창업 특공대'와 같이 위험을 무릅쓴 성공 사례를 만들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창조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글로벌 청년 창업'은 20세기말 정보통신 혁명에 이어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왜냐하면 이 새 단어가 하이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넷스케이프의 마크 앤드리슨, 야후의 제리 양,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 20대 청년 창업으로 개인용 컴퓨터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이르는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을 주도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징가, 그루폰 등의 창조기업을 설립한 신세대 청년들이 새로운 IT 열풍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소셜 커머스 등으로 대변되는 'IT 신(新)물결'에서 소외되고 있는 형편이다. 청년들이 모험을 꺼리고 창업의 열기가 식었다는 걱정이 많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정부가 '위험을 무릅쓴 가치창출' 도와야

먼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보자. 올해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만 1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월 1백만원짜리 청년 월급쟁이를 10만명 만들 수 있는 큰 금액이다. 그런데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도 창업 열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작은 문제가 아니다.

창업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정부의 예산이 대부분 자금, 공간, 경영지도 등에 투여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책은 창업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기 쉽다.

국제기업가정신 분석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초기 창업활동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창업 행태가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창업 행태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강하지만 비즈니스 성공의 기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분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용감하지만 맹목적(brave and blind)'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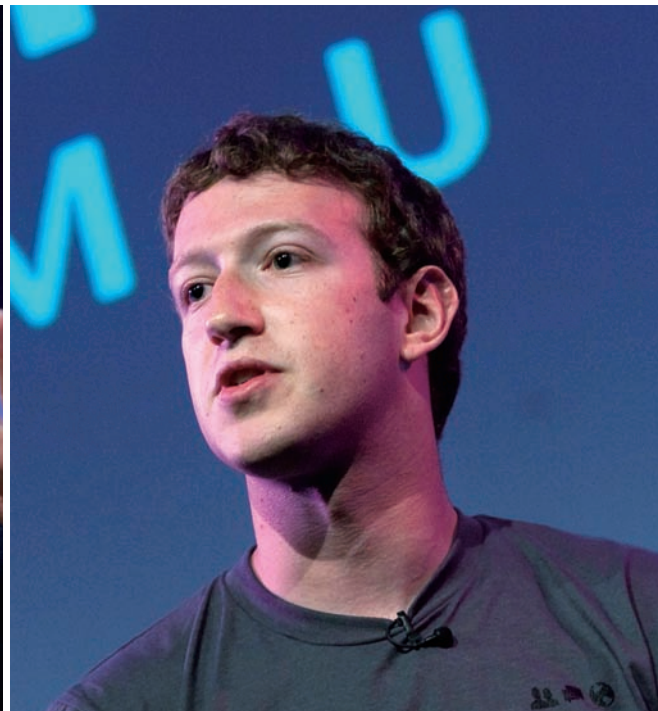
창업의 본질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두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우리 청년들은 겁쟁이가 아니다.
실패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위험이 크고,
시장에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우리들이 스키를 배우는 자세와 비슷하다. 속도를 멈추는 기초 훈련만 마치고는 곧바로 리프트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 위험을 감수하며 미끄러 내려오면서 배운다. 그 용맹함을 자랑삼아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스키타기를 전수한다.

문제는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이러한 위험천만한 스키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들이 겁쟁이라서가 아니다. 연대보증제도와 같이 실패 시 감내해야 하는 위험이 크고, 시장에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창업자는 고용자와 달리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위기에 처해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 실패 시 최저 생계보장도 없다. 이런 이유로 청년층의 창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근처의 한 스키장은 전체가 5단계로 설계되어 있다. 첫 단계는 누구나 올라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슬로프로 시작한다. 본인이 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강습을 받을 수 있다. 리프트를 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스키강사가 곧바로 다가

조선DB

청년창업은 세계적인 추세다. IT 창업의 선구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왼쪽)와 페이스북을 성공시켜 최근 제2의 IT창업 붐의 주인공이 된 마크 주커버그.

와 강습을 권유한다.

이렇게 숙달이 되면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각 코스를 이어 놓은 아주 완만한 슬로프가 별도로 있어 어느 단계에서나 안전하게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 있다. 위험관리가 이쯤은 되어야 누구에게나 스키타기에 도전하라고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과 기회는 원래 한몸이라고 한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창조적인 정책이 아쉽다. 많은 예산을 들여 창업 특공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켜 억지로 성공사례를 만들기보다는 위험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주는 사회 인프라의 조성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대책이다.

위험관리를 해줄 사회 인프라 조성 아쉬워

우리나라의 창업 정책은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화됐다. 그동안 전 세계를 벤치마킹하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중에 한국을 대표할 만한 정책을 꼽으라면 떠오르는 것이 없다.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 창업 인큐베이터가 설치되었지만 창업의 산실로 주목받는 곳이 없다. 여러 대학에 창업전문대학원을 설치했지만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창업지원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지원인력 중에 실제로 창업 경험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의 창업정책도 '용감했지만 맹목적이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의 10년을 지나 지금 또다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모바일 혁명으로 인한 제2의 IT 붐이다. 이번에는 글로벌 창업이 어색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이 나설 것이다.

이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창조적 아이디어와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하는 창조기업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사회적, 예술적 가치 등 다양하다.

21세기 최고의 부자인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은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창업에 성공한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세대의 기업가 정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창조적인 정책 대안들이 절실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양적으로 팽창해 온 '20세기적 정책들'을 재평가해 봐야 한다. 보다 창조적 발상으로 창업정책들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G

글 · 이장우 (경북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실패에서 배운 홍보… “이젠 승률 높아요”

지난 4월 2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2011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를 홍보하는 전면광고가 실렸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 교수와 가수 김장훈씨가 독도와 동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을 합쳐 준비한 것이다. 국내 유일한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에게 ‘한국홍보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다.

남경동

서경덕 교수는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문화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한국홍보전문가가 됐다”고 말했다.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는 어떤 대회이기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전면광고까지 실은 것일까. 오는 6월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는 제4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포항에서 출발해 울릉도~독도를 거쳐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동해에서 열린다. 별로 특별한 점을 모르겠다면 광고 속 지도 표기를 주목해 보자.

이 광고에는 독도와 동해가 각각 ‘Dok-do’, ‘East Sea’로 표시되어 있다. ‘당연한 건데 왜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시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광고의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이처럼 세계가 범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무한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다.

교수님의 뒤를 이을 한국홍보전문가 양성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유, 왜 안 하겠어요? 정말 많은 대학생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젊은 친구들과 세계 80여개 나라를 다니며 8개월간 비빔밥을 직접 소개하는 ‘비빔밥 유랑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단장을 맡고 젊은 친구들은 세계를 돌고 있죠. 저는 주요 도시만 가고요. 이런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면 너무 좋죠.”

경력에 ‘홍보대사(2010년 부산소년의집, 2008년 독립기념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참 많은데, 특별히 ‘홍보’에 초점을 맞추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홍보전문가가 되어야지!’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해외에 나갔을 때 다들 저보고 중국인, 일본인이냐고 물어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문화를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문화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단순한 생각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된 거고요.”

성공도 많이 하셨지만 실패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조사를 많이 하셨군요.(웃음) 실패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하지만 실패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실패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나름 노하우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야 점차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실패하셨던 것 중에 특별히 재도전 해 보고 싶으신 프로젝트는 없는지요?

"너무나 많죠. MBC <무릎팍도사>에서 얘기했던 그 '잔디옷' 아시죠? 그거 가지고도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요. 잔디옷을 만든 진풀씨랑 다시 한 번 친환경 확산에 좋은 쪽으로 재생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조선DB

서경덕 교수는 기발한 방법들로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2011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 전면광고(왼쪽)와 서 교수와 대학생들이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소망하며 받은 서명을 들고 있는 모습.

지난 2002년 서 교수는 '2002 한일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인 진풀씨와 상암 경기장의 잔디로 재킷을 만들었다. 미국인 진풀씨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잔디로 재킷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서 교수는 우연히 TV를 통해 진풀씨를 보고는 무작정 뉴욕으로 찾아갔고 그의 애국심에 감동한 진씨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서 교수는 완성된 잔디옷을 당시 대통령이던 故 김대중 대통령께 전달해 월드컵 홍보차 입어주길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 전면광고를 실으셨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일단 저랑 김장훈씨가 정말 코드가 딱 맞는 게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막 외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문화, 관광, 스포츠예요. 포항~울릉도~독도~포항으로 이어지는 코스.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이 자체로도 자연스럽게 독도와 동해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요트협회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돕겠다고 해서 김장훈씨는 대회 개막식 연출을, 저는 해외 홍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문화, 관광, 스포츠를 통한 독도 실효적 지배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많은 국민이 독도를 자주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한다면 누가 어디서 태클을 걸 수 있겠어요? 그냥 방문하세요. 만약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이 올해 20만명이었다면 내년엔 40만명, 그다음엔 60만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누가 한국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최근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1만명을 넘었는데, 지난 4월 8일 팔로워 1만명 돌파 기념으로 가진 번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번개를 2시간 전에 쳤는데 1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때 '약속이 없다거나 술이 한잔 당기는 사람들 한번 만납시다'해서 만든 자리였는데 정말 편안한 자리였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서경덕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강당에서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열강했다. 그는 강의를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계화(化)'가 아닌 세계가 화합하는 '세계화(和)'가 진정한 세계화"라며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에티켓, 창의적 사고, 미친 실행력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도, 동해, 동북공정, 고구려 등 우리나라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한국홍보전문가는 서경덕 교수 한명이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한국홍보전문가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하나가 곧 한국이 하는 말과 행동이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잘 지키다 보면 국민 모두 진정한 한국홍보전문가가 되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G

글 · 남경동 (한양대 관광학부 4학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의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현재 6기 1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지은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은 인도의 한 시골마을. 인도 여인처럼 화려한 천을 두른 지은씨가 여행친구, 마을 주민과 함께 경운기 짐칸에 앉아 활짝 웃고 있다.

10개월 동안 세계 16개국 여행한 이지은씨

"결심을 행동에 옮기니 삶이 바뀌네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한 여대생이 겁없이 세계일주에 도전했다. 10개월 동안 3대륙 16개국의 세계 여행을 통해 더 성숙하고 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G20세대 이지은씨다. 그는 다른 G20세대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행을 떠날 것을 충고했다.

"지금 강남역 7번 출구에 계신 거 맞죠?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터뷰를 위해 약속장소로 오던 이지은(24·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씨는 길을 잃었다며 2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필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는 지은씨. 자주 오간다는 서울 강남구 번화가의 길도 헤매는 그가 어떻게 아시아·유럽·북미의 3대륙 16개국 여행을 했는지 의아했다.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에서는 점점 자신감이 묻어 나왔다.

지은씨가 했던 세계일주 여행을 소개해 주세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계여행을 다녀왔어요. 2009년 7월에 한국을 떠나 지난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해외 봉사활동, 어학연수, '코치서핑(Couch Surfing) 여행'(현지인이 관광객에게 자기 집을 숙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여행했어요.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다른 외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며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고,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무너진 집들을 복구하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인 코치서핑을 통해서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가 거의 안된 상태에서 떠났다고 들었는데요.

"전 원래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고,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게다가 여행을 갑자기 결정했거든요. 출국일이 다가오자 오히려 도망가고 싶

어진 제가 여행 준비를 안 하고 있자 친구들이 '너 뭐 하는 거니? 미쳤니?' 하며 핀잔을 줬어요. 출국날 아침에도 겨우 시각 맞춰 공항에 도착할 정도였어요."

여자 혼자 해외여행이 무섭진 않았나요.

"당연히 무서웠죠! 처음으로 혼자 하는 외국여행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헤어지자마자 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안전벨트도 제대로 못 매 쩔쩔맸고, 대만공항에서는 환승을 어찌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파리공항에서 내렸는데, 묻고 또 물어 겨우 리옹역에 도착해 보니 제가 아끼던 옷이 없어졌더라고요. 사실 비행기를 갈아탈 때도 새로 산 선글라스랑 책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코치서핑을 통해 처음으로 낯선 외국인 집으로 자러 가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무서워 잠을 못 이뤘고, 외출할 때는 여권이며 돈이며 다 챙겨 나가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운 게 있을 때는 난 일부러 더 부딪쳐' 라고 말해 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무서울 때마다 그 친구 말을 떠올리며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친구처럼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여행을 하며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말해주세요.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코치서핑을 할 때였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아 간 그곳은 문명의 혜택이 전혀 안 닿는 지역이었어요. 읍내라고 부르는 곳에 작은 생필품 가게가 몇 군데 있을 뿐, 그곳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처음 본다며 신기해할 정도였죠.

제가 묵었던 집은 카스트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집 안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가족 식사를 모두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부엌에서 혼자 드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와 친구가 함께 일을 도와주고 온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우리가 떠나던 날 아주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우리의 안전을 기원해 주셨어요.

이 밖에도 인도에서 잘 곳이 없어 헤매는 우리에게 자신의 빈집 열쇠를 내준 분, 중국 상하이에서 제게 안방을 내주고, 자신은 거실 바닥에서 잤던 친구 등 잊을 수 없는 인연들이 많아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계일주를 한 후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제가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10개월이었어요. 또한 '여자라서' '여자라고' 못할 건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자라서 조금 더 힘들 순 있겠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극복했을 때 그 가치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 여행은 제게 큰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조선DB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집짓기에 참여한 지은씨. 그는 봉사활동과 세계일주를 병행했다.

10개월 동안 세계를 누빈 당찬 한국인 이지은씨는

소속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4학년 **좌우명** 가상의 한계선을 긋지 말자
개인미디어 e메일 · jieun.chro@gmail.com / 트위터 · @Jieun_CHRO
www.cyworld.com/jieunchro / blog.naver.com/enter9736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될 G20세대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카더라' 통신은 믿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의 차이는 대단히 커요. 자신만의 여행을 기획하고 떠나세요. 저는 일본에서 담배도 팔아봤고, 낯선 사람 집에서도 자 보았어요. 그리고 관광보다는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했고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 갔을 때는 바티칸에 가는 것보다 친구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으며 그 친구의 생각과 문화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제 여행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여행 같은 걸 기획해 보세요. 이 역시 제 제안에 불과해요.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여행, 방법, 내용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G

글 · 박지용 (서강대 경영학과 · nevermin7@gmail.com)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현장… 평택 정화수 할머니 집

60년 된 헌 집이 새집처럼… "고마워요"

대부분의 주거복지 사업이 무주택자 위주로 추진됐던 데 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진행해 온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는 어떨까.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을 받았던 경기도 평택 정화수씨 집을 방문해 봤다.

경기도 평택의 한 농가주택. 78세의 정화수씨와 초등학교 6학년 된 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담한 집이었다. 손녀는 10년 전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할머니인 정씨와 함께 살고 있다. 인근에 거주중인 정씨의 큰아들 역시 4년 전 뇌수술과 폐수술을 받으면서 딱히 수입이 없는 실정이다. 4년 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정씨는 생활지원금 29만원과 노령보험금으로 손녀딸을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는 형편이다.

쓰러지기 직전의 폐가에 가깝던 시골농가

평택 시내에서 약 8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 위치한 정씨의 집은 정씨가 이곳으로 시집을 온 60년 전부터 줄곧 거주해 왔다는 오래된 주택이었다. 내부는 오래된 창문과 단열이 되지 않는 벽 등으로 외풍이 심했지만, 난방비를 아끼느라 손녀가 집에 있는 저녁 시간과 새벽에만 간헐적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보수를 맡은 LH공사는 오래된 창호를 이중새시로 교체했고 방과 주방 사이에는 중문을 설치해 주방의 냄새와 냉기를 차단했다. 이것만으로도 난방비 지출이 절감됐다.

정씨는 "예전에는 동절기마다 월 30만원 이상의 난방비가 나와 생활비 지출에 부담이 됐는데, 개·보수를 마친 지난 겨울에는 그 절반에도 안될 정도의 난방비가 나왔다"며 "추워서 방에서 꼼짝도 않던 손녀딸이 거실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흡족해했다.

정씨의 집에서 단열 못지않게 심각했던 부분은 천장의 대들보 파손이었다. LH공사 차상우(경기지역본부/주거복지부) 대리가 처

'이제야 집 같은 곳에서 살게 됐다'며 환한 미소를 짓는 정화수씨. 개·보수 전 오래된 창호(상단 왼쪽 사진)에서는 냉기가 새어 들어왔고 대들보(상단 오른쪽 사진)는 무너져내려 위험천만해 보였다.

음 방문할 당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전한다. 담당자가 보여준 공사 전 사진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씨의 주택이 있는 곳은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불과 4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특히, 이곳은 안성천의 잦은 범람으로 기지의 표준고도를 높이기 위한 공사와 기지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25톤짜리 대형 공사트럭이 지나다니고 있다.

대들보와 함께 집 외부의 담벼락도 대부분 파손돼 있는 상태였는데, 주택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 대형 트럭의 잦은 이동이 그 손상을 더 심화시킨 것 같다.

주택의 외벽이 심하게 갈라져 초등학생의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고, 마당의 바닥 균열 또한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울퉁불퉁하게 갈라져 있었다. 천장에 달린 전등갓도 덤프트럭이 지날 때마다 집이 흔들려 떨어져 깨질까 우려돼 전등갓을 모두 벗겨 놓은 상태였다.

개·보수 후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다

LH공사는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면서 천장의 파손된 대들보를 연결하고, 지붕의 하중으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제 구조물 보강하는 한편 도배와 장판을 새로 깔아 깨끗하게 마무리했다. 또 떨어지기 직전이던 싱크대도 깨끗한 느낌의 흰 싱크대로 교체했다. 갈라지고 깨져 있던 개·보수 전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변화다.

병중에 있는 큰아들과 객지를 떠도는 작은아들, 그리고 남겨진 손녀딸과 함께 가족의 시름과 아픔을 오롯이 짊어지고 살던 정씨의 얼굴에도 어느새 미소가 번졌다.

비록 주택의 외부까지 말끔히 수리된 것은 아니지만 말끔하고, 따뜻하게 변화된 집 내부를 살펴보면서 정씨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집 같은 곳에서 살게 됐구나' 하는 마음뿐이지요.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LH공사의 다음 주택 개·보수 가정은 가족 모두가 장애인인 장애인 가정이라고 한다. '사랑의 집 고치기 천사'는 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웃음 짓게 할지 궁금해진다.

G 글과 사진·조은영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개·보수 후 이중새시를 달고 싱크대는 새것으로 교체했다(상단 사진). 정화수씨 집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바뀌었다.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시행 중인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중 노후화된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백만원 내외의 주택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창문을 교체하거나 새시 설치를 지원해 주는 '그린홈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8천 가구에 총 5백11억원이 지원됐다. 자가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세대는 해당 시·군, 읍·면·동 건축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5월 악양들판은 푸른 보리밭과 보라빛 자운영 꽃밭이 황홀한 색의 조화를 이룬다.

경남 하동에 가면

화개골 찻잎…섬진강 재첩… 악양들판엔 소설 '토지'의 감동

이즈음 하동으로 떠나는 여행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화개골 층층 비탈에 자리한 차밭에는 어린 찻잎을 따는 아낙들의 손길이 분주하고 섬진강변에서는 손톱만 한 재첩이 올라온다. 악양들판은 초록색 청보리와 보랏빛 자운영이 어울려 어여쁜 풍경을 빚어낸다. 쌍계사 풍경 소리를 들으며 그윽한 차를 머금다 보면 비로소 봄이 만개했음을 느낄 수 있다.

쌍계사 경내에 있는 9층 석탑.

섬진강변 19번 국도 쌍계사 가는 길, 화개마을 층층 비탈에는 수십명의 아낙들이 찻잎을 따고 있다. 곡우는 이미 지나 우전(雨前)은 다 땄고, 지금은 세작을 만들 가늘고 고운 찻잎을 따고 있다.

하동은 국내 최대의 야생차 재배지다. 가파른 계곡 기슭 곳곳에 차밭이 만들어져 있다. 지리산 화개동 쌍계사 주변은 차 시배지(始培地)로 널리 알려졌는데, 〈삼국사기〉 제10권 신라본기 흥덕왕 3년(827년)조에 보면 '당나라에 갔다가 귀국한 사신 대렴이 차 종자를 가지고 왔다. 왕은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했다'고 돼 있다. 이후 화개동은 임금님께 차를 바치는 곳, 즉 어차동천(御茶洞天)이 됐다. 쌍계사 일주문 못 미쳐 차시배 추원비가 세워져 있다.

하동차는 맛과 향이 각별하다. 지리산 화개 골짜기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13.8도, 강수량은 1천5백38밀리미터다. 지리산이 연일 운무를 쏟아내고 일조량도 풍부하다. 산기슭 돌밭은 물이 잘 빠지고 다습해 차나무가 자라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산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비료나 농약을 쓰기도 어렵다.

하동차는 무쇠솥에 덖은 고급 수제 녹차

초의선사는 〈동다송〉에서 "지리산 화개동에는 차나무가 40~50리에 걸쳐 자란다. 차는 골짜기의 난석에서 자란 것을 으뜸으로 치는데 화개동의 차밭은 모두 골짜기며 난석(爛石)"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동차는 증기로 쪄 내는 방식이 아닌 마른 솥단지에 높은 열을 가해 차를 '덖는' 방식으로 만든 수제 녹차다. 맑은 날 잎을 따 무쇠 솥에 찻잎을 덖은 후 멍석에다 비비고 말리는데, 찻잎을 멍석에 비비는 이유는 일부러 상처를 내 찻물로 다릴 때 더 진한 향이 배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동군청에 따르면 하동의 차밭은 4백95만8천6백77제곱미터(약 1백50만 평)나 된다. 그 중 3백50만 제곱미터가 화개면과 쌍계사 주변에 몰려 있다. 하동군은 차 판매수입을 매년 약 2백50억 이상, 부가산업까지 합치면 8백억원 가까이 올린다고 한다.

만석을 품은 악양들판은 청보리와 자운영꽃밭

화개골에 자리한 차밭을 따라가다 보면 발걸음은 자연스레 쌍계사에 닿는다. 신라 성덕왕 21년(722) 의상대사의 제자 삼법스님이 지었는데, 고운 최치원의 친필이 새겨진 쌍계석문, 대웅전 옆에 한적하게 자리 잡은 진감선사 대공탑비(국보 제47호), 국사암 뜰의 천연 느릅나무 등이 볼 만하다. 일주문으로 향하는 울창한 숲길은 한여름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다.

쌍계사는 범패(梵唄)의 발상지로도 잘 알려졌다. 진감선사 혜소가 중국에서 불교 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와 쌍계사 팔영루에서 범패를 만들어 냈으며, 범패 명인들을 많이 배출했다.

5월 하동을 한층 더 아름답게 채색하는 곳은 악양들판이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로 잘 알려졌다. 들판은 넓기도 하거니와 지리산 골짜기까지 깊숙이 뻗어 있어 '거지가 밥 동냥을 하며 다 돌려면 1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악양의 원래 이름은 악양(嶽陽). 하지만 나당연합군의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중국의 악양과 같다 해서 악양(岳陽)이라고 이름붙였다.

사실, 평사리는 〈토지〉의 주 무대였지만 박경리 선생은 평사리와 아무 연관이 없다. 박경리 선생은 1960년대 말 어느 날 섬진강을 지나다가 악양들을 보곤 〈토지〉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 무렵 선생은 경상도 땅에서 만석지기 사대부 집안이 4대에 걸쳐 펼쳐 나가는 대하소설의 무대를 찾는 중이었다. 하지만 선생은 〈토지〉를 집필할 때는 평사리에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악양들판은 5월이면 청보리밭과 보랏빛 자운영꽃밭이 만들어 내는 색의 조화로 황홀하다. 자운영은 겨울철 소먹이로 논에 심었던 한해살이 풀. 모내기를 앞두고 갈아엎으면 자연스레 퇴비가 돼 친환경농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들판 한가운데 나란히 서 있는 부부 소나무 두 그루가 그림처럼 아름답다.

악양들판 가까이 최참판댁이 있다. 최참판댁은 많은 이들이 원래부터 있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SBS 대하드라마 〈토지〉를 촬영하기 위해 만든 야외세트다. 한옥 14동으로 꽤 공들여 지은 듯 유서 깊은 영남의 여느 고택 못지않게 으리으리하다.

길상이 거주하던 행랑채, 최치수의 신경질적인 기침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사랑채, 별당 아씨가 머물던 연못 딸린 별당 등 넉넉하지만, 왠지 적막한 기운이 흐르던 소설의 분위기가 잘 표현돼 있다.

화개골. 봄이면 산비탈마다 야생차를 따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초의선사는 "지리산 화개동 차는 골짜기의 난석에서 자란 '으뜸 차'"라고 말했다.

인근의 '평사리 문학관'도 좋은 구경거리다. 〈토지〉를 비롯해 하동과 관련된 문학 작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평사리 문학관도 만들어 놓았다.

최참판댁을 지나 고소산성으로 올라갈 수 있다. 600년대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원군인 위병의 섬진강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성이다. 성은 복원이 잘 되어 있다. 가파른 언덕이 있어 숨이 차기도 하지만 길이가 길지 않고 일단 올랐을 때 경치가 좋아 힘듦을 잊게 한다. 솔바람 부는 산성에 앉아 드넓은 악양들판과 화개에서 하동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을 내려다보는 풍경은 가히 장관이다.

5월 하동의 별미 재첩국과 참게요리

5월 하동에는 찻잎 따기 뿐만 아니라 섬진강 재첩 잡기도 한창이다. 4월 중순부터 섬진강에는 재첩이 나기 시작한다. 재첩은 가막조개, 다슬기라고도 부르는 민물조개. 바다 가까운 금성면에서 고전면 신월리를 지나 하동송림까지 이어지는 섬진강변에서 재첩이 난다. 하동포구 일대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데다 물이 깨끗하고 고운 모래가 깔려 있어 재첩이 살기에는 최적지다.

맑은 물에서만 잡히는 재첩은 5월이 가장 맛있을 때. 정갈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내는 재첩국은 해장국으로 그만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술꾼들의 대표적인 속풀이 음식이기도 했다. 재첩국을 동이에 담아 머리에 인 아낙들이 골목을 누비며 "재첩국 사이소!" 하며 아침을 열었다. 하동 어디를 가나 재첩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재첩특화마을도 조성돼 있다.

참게는 재첩과 함께 섬진강을 대표하는 음식재료다. 특히 하동 섬진강 참게는 바닷물과 만나는 기수지역에서 서식해 비린 맛이 덜하다. 뿐만 아니라 참게 본연의 맛 또한 강해 명품 대접을 받는다. G

글과 사진 최갑수 (시인·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대전~진주고속국도 함양분기점에서 88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서 남원 IC로 나와 19번 국도를 따라간다.

잠잘 곳 화개장터에서 5분 거리에 자리한 **수류화개**(055-882-7706)는 전통한옥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 벚꽃당, 석류당, 별당, 국화당, 매화당 총 6채로 구성돼 있으며 6채 모두 전통한옥 건축방식대로 못질 한번 없이 지어 올렸다. 지리산온천지구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숙박정보는 **하동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hadong.go.kr)를 참조하면 된다.

먹을 곳 하동의 수많은 다원 중에 **관향다원**(055-883-2538)은 간판도 없어 아는 이만 찾는 곳이다. 주인이 직접 4~5월 중 녹차 잎을 채취해 말리고 덖는다. 재첩국은 **동흥재첩국**(055-884-2257), **부흥재첩식당**(055-884-3903), **섬진강재첩식당**(055-884-3662) 등이 유명하다. 재첩특화마을도 따로 조성돼 있다. 참게장은 **돌팀이 횟집**(055-883-5523)이 유명하다.

고소산성에서 바라본 섬진강 풍경.

하동 여행의 별미 재첩국.

재첩회무침.

조선 최고의 절개를 찾아서…

간송미술관 5월 15~29일 '사군자대전'

조옥봉 스님의 〈묵죽〉

조선 선조(宣祖) 때 진천 현감을 지낸 어몽룡(魚夢龍· 1566~1617)은 '조선 제일의 묵매화가(墨梅畵家)'다. 그는 매화 가지는 담묵(淡墨)으로 정갈하게, 꽃잎은 윤곽선 없이 몰골법으로 단순하게 그려낸 후, 그 위에 농묵(濃墨)으로 꽃술을 점 찍어 표현했다. 당대 사람들은 〈묵매도〉를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매화의 절개를 강인하고 청신(淸新)하게 표현했다"고 했다.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1707~1769)은 사군자(四君子)에 모두 능했다. 그의 작품 〈오상고절〉(傲霜孤節·서리를 이겨내는 외로운 절개)에는 바위 곁에 피어난 국화가 표현됐다. 습윤한 필치의 담묵으로 표현된 국화는 함께 그려진 농묵의 바랭이풀과 대비돼 고아한 정취를 자아낸다.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이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사군자대전'(四君子大展)을 연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이 담긴 매란국죽(梅蘭菊竹) 1백여 점이 나온다.

이번 전시는 1971년 가을부터 매년 봄·가을 각 2주씩 정기전을 열어온 간송미술관의 80번째 전시다. 간송미술관은 1976년 가을 '사군자전'(四君子展)을 연 적이 있지만 소규모였고, 2005년 가을에도 '난죽대전'(蘭竹大展)을 열었지만 당시엔 매화와 국화 그림은 빠져 있었다.

1971년 가을이후 80번째 정기 전시

한국 회화 사상 최고의 묵죽화가로 꼽히는 탄은(灘隱) 이정(李霆·1554~1626)의 〈풍죽〉(風竹)은 바람에 맞선 대나무 네 그루를 화폭에 옮겨놓았다. 뒷편의 세 그루는 담묵으로 은은하게 그려 그림자처럼 보이게 하고, 앞쪽 대나무는 농묵으로 또렷하고 굳세게 그렸다. 그림을 보는 사람은 바람의 세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어몽룡의 〈월매〉(月梅)와 함께 5만원권 뒷면에 등장한다.

전시에는 척박한 땅에서도 푸른 잎사귀를 피워올

1 조선 제일의 묵매화가 어몽룡의 〈묵매〉
2 난초의 본질을 꿰뚫어본 추사 김정희의 〈산상개화〉
3 한국 회화 사상 최고의 묵죽화가로 꼽히는 탄은 이정의 〈풍죽〉

리는 난초의 본질을 꿰뚫어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난초 그림, 명성황후의 친정조카로서 세도를 과시했지만 명성황후 시해 후 홍콩, 상해 등으로 망명했던 민영익(閔泳翊·1860~1914)이 상해 망명기에 그린 〈묵란〉도 나왔다. 추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민영익은 상해로 가 추사의 난법(蘭法)을 국제화한 셈이다.

원래 사군자는 문인의 절개와 지조를 담는 그림이지만, 도화서(圖畵署) 화원이었던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1745~?)의 〈백매〉(白梅)는 문인화 못지않게 기품이 흘러 넘치면서 직업화가다운 회화성도 겸비하고 있다. “정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단원은 자신도 문사(文士) 못지않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의 설명이다.

최완수 실장은 “각종 위난(危難)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군자’(君子)라 이르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곧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식물을 이들에 빗대 ‘사군자’라 한다”면서 “전시를 개최한 지 40년이 되었으니만큼 우리 미술관의 정신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G

글 · 곽아람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문의 · 간송미술관 ☎02-762-0442

신고합니다! 군인을 위한 '맞춤 잡지'

국내 첫 병영매거진 월간 〈HIM〉 창간… 다채로운 읽을거리 담아

'최정예 전투 로벨 사단', 이기자부대

"군화 거꾸로 신는 건 절대 못 참아"

월간 〈HIM〉은 부대탐방, 군화와 곰신의 데이트 등 장병들의 생생한 생활 이야기와 관심사를 반영한 기사로 일반 잡지와 차별화했다.

군인을 위한 맞춤형 잡지, 월간 〈HIM〉이 창간됐다. 〈HIM〉은 스포츠, 책, 영화, 여행지 등 장병들의 문화적 감성을 충족하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유성욱 월간 〈HIM〉 편집장은 창간 이유를 "매년 30만명의 젊은이가 2년여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지만 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한 전문 문화예술 매체가 없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고 밝혔다.

창간호 커버스토리에는 배우 이동건(본명 이동곤) 일병의 인터뷰가 실렸다. 톱스타에서 병사로 변신한 이 일병의 인터뷰를 통해 연예병사들의 24시를 살펴볼 수 있다.

창간호에 배우 이동건 일병 인터뷰 실려

무엇보다 장병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설문 결과가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장병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먼저 요즘 군대 내 최고 인기 스타는 누구일까. 장병의 77퍼센트가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으로 '소녀시대'를 뽑았다. 여자 솔로 가수로는 '아이유'가 단연 톱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는 박지성이 1위에 올랐다.

여가 시간은 주로 TV시청(41퍼센트)으로 보내고 있었다. 수면 및 휴식, 운동, 독서, 동료들과의 대화, 음악감상 및 인터넷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장병들은 월평균 2~3권의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읽는 책은 일반(문학) 소설이었으며 판타지 소설, 자기계발서, 잡지, 경제경영, 인문철학 순이었다.

그러나 많은 장병들이 독서 환경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대다수가 '자기계발'을 이유로 병영도서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높은 관심을 반영한듯, 〈HIM〉은 창간호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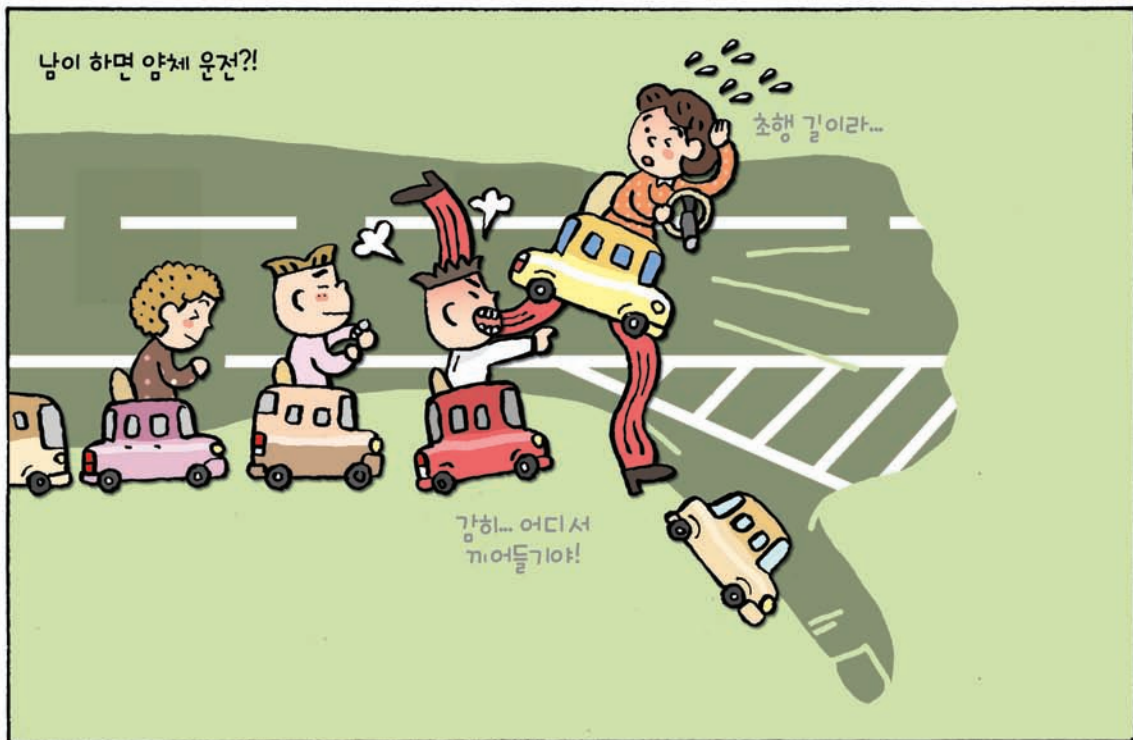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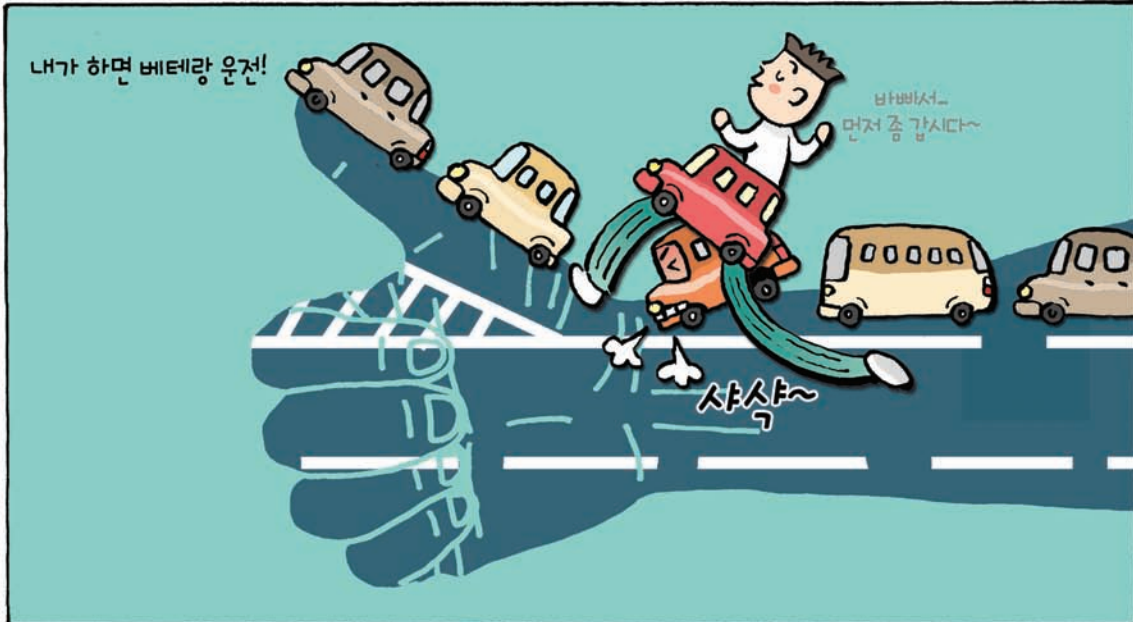
정 장관은 2000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병영도서관 활성화에 힘써온 주역이다. 정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병영도서관 활성화에 애정을 갖게 된 배경과 추진방향을 밝히고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HIM〉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발행된다. 황규식 전 국방부 차관이 발행인이며 민승현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장이 편집인이다. 잡지는 각군 생활관(내무반)을 비롯해 전·의경, 경비교도, 공익요원들의 근무지에 무료로 배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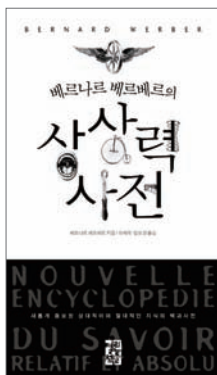
유성욱 편집장은 "월간 〈HIM〉은 군 생활 기간을 인생의 황금기로 전환시켜,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장병들의 관심사를 파악해 보다 유익한 잡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제남 기자

그때그때 달라요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상상에 과학을 입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이세욱, 임호경 옮김
열린책들 펴냄·1만5천8백원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개미〉 〈뇌〉 〈신〉 등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베스트셀러를 발표해 온 작가다. 놀라운 과학적 상상력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소설가이기도 하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열린책들)은 그의 마르지 않는 창작의 원천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백과사전식 지식노트다.

저자는 열네 살 때부터 기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과 수수께끼들, 여기서 비롯된 자신의 영감과 해석을 적어 왔다. 그 일부가 1996년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됐고 이번 책은 2백30개 이상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 총 3백80여 편의 글을 실은 확장판이다.

"개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살아남았다"며 개미 사회의 성공적인 생존전략을 들여다보는 글에서는, 그의 대표작 〈개미〉의 출발점을 훔쳐볼 수 있다. 앞으로 그가 선보일 상상의 세계 아이디어도 숨어 있는 셈이다.

그가 과학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만난 발견과 정보 외에도 문학, 인류학, 심리학, 전설, 신화, 처세까지 수많은 분야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펼쳐 내는 지식과 사유가 풍부하게 드러난다. 인간은 왜 자신을 도와준 사람보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지, 쥐들의 세계에 어떻게 노예제도가 만들어지는지, 검투사들은 왜 대개 뚱보였는지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저자는 "새의 알은 자연이 빚어낸 걸작 가운데 하나"라며 알 껍데기의 정교한 구조와 노른자의 자리가 변하지 않게 하는 알끈과 같은 새 알의 특장점을 설명한다. 또 "청바지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위해 공산주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면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더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청바지에서 평등을 보기도 한다.

저자는 방대한 지식을 펼쳐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베르베르는 그레이하운드와 사람이 경주를 하면 언제나 개가 먼저 들어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목표를 가늠하느라고, 또 목표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의욕이 부침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한다. 장거리 경주에서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생각만 해야 한다. 자꾸자꾸 나아가면서 그때그때에 맞게 행로를 수정하면 된다."('장거리 경주' 중에서)

글·강종훈 (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새로 나온 책

골퍼의 기량 향상 돕는 필라테스·웨이트 트레이닝

골프는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연습해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면 신체의 불균형과 상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라운딩 전후의 운동과 집중력 향상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18홀을 도는 동안 일관된 스윙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근지구력이다.

골퍼, 필라테스 강사, 웨이트 트레이너가 힘을 모아 펴낸 이 책은 골프를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골프 레슨뿐만 아니라 운동 후의 회복·치료적인 요소를 가진 필라테스와 체력 강화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해 골프 트레이닝 방법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었다.

저자들은 골프에 맞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신체 운동을 함으로써, 기술과 레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드는 일이 골프 트레이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고 기량을 갖춘 프로 골퍼들은 물론 아마추어 골퍼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쉬지 않고 한다. 골프장에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가 구비된 대형 트럭이 따라다니는 경우까지 생겼다.

골프는 세밀한 감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이 늘면 유연성이 나빠진다는 잘못된 상식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무수히 반복하는 연습만이 골프의 정답은 아니다. 공을 치는 반복적인 연습은 경기력 향상에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하기 위한 최적의 몸 상태에서 스윙을 교정한 후 연습한다면 짧은 시간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골프 컨디셔닝
신준수, 백선경 외 지음 | 오성 펴냄·1만8천원

불빛은 사라졌지만…

글과 그림 · 최영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우리는 닫힌 문만 보고 '절망'이라고 할 뿐이다. – 헬렌 켈러

고마워요 엄마! 사랑한다 내 딸아!

2005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명의 한국 관객이 선택한 뮤지컬이 있다.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대형 뮤지컬이 아니다. 소극장 무대에 주로 서는 창작 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 〈빨래〉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한 해에만 2백 회 공연 가운데 1백10회가 매진됐다. 스타 캐스팅이나 매스컴의 큰 홍보 없이 작품성과 탄탄한 연기, 입소문 등에 힘입어 '대학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 올해 공연은 9월 4일까지 서울 대학로 학전그린소극장에서 열린다.

고향을 떠나 힘든 서울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하고픈 작품이다. 현실 속에서 한번쯤 봤을 법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래서 몰입도가 높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를 배경으로 '받은 월급'보다 '못 받은 월급'이 더 많은 불법체류자 몽골인 솔롱고, 강원도 강릉 출신의 서울살이 5년차 서점 직원 나영, 40대 장애인 딸을 방 안에 가두고 사는 주인집 할머니, 동대문에서 속옷장사를 하는 희정 엄마가 나온다. 그들의 고단한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진솔하게 그렸다. 이들의 힘겨운 서울살이를 지켜보는 동안 관객들은 두 눈 그득히 눈물이 고인다. "서울살이 참 못됐죠." 극 중 나영의 대사는 보는 이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정도로 힘이 있다.

창작 뮤지컬 〈빨래〉 6년째 롱런

솔롱고 역을 맡은 배우(성두섭·이주광)의 팬이라면 2막 시작과 동시에 과감하게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다. 이 배우가 2막 초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잠시 등장하는데 사인회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선착순 15명. "사인 받고 싶으신 분"이란 대사가 나오면 후닥닥 무대로 뛰쳐나가자. 용기를 낸 자, 솔롱고의 사인을 받을 수 있다.

〈빨래〉는 2005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무대에 처음 오른 이후 소극장 공연을 이어 오다가 2009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중극장인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로 무대를 넓히기도 했다. 당시 가수 임창정과 뮤지컬 배우 홍광호가 솔롱고 역을 맡아 화제가 됐다.

뮤지컬 평론가인 조용신씨는 〈빨래〉의 장기흥행 비결로 완결성 있는 서사구조, 상대적으로 저렴한 티켓 가격(2만9천~3만9천원), 현실성 있는 내용 등을 꼽았다.

조씨는 "뮤지컬임에도 가격 부담이 덜하고 극의 내용이 현실감

명랑씨어터

서울 변두리 달동네를 배경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 소시민들을 그린 뮤지컬 〈빨래〉.

을 잘 살려냈다"면서 "감동, 유머, 사랑 세 가지 흥행 코드를 두루 갖춘 데다 관객의 입소문이 얹어지면서 매번 신규 관객이 유입돼 롱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빨래〉 외에도 라이선스 뮤지컬이 아닌 한국 고유의 창작 뮤지컬은 최근 들어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창작 뮤지컬의 풍년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국의 눈물〉 3차까지 매진… 티켓 파워 막강

먼저 해외진출을 목표로 내건 창작 뮤지컬 〈천국의 눈물〉(Tears of heaven). 이 작품의 탄생 비화는 흥미롭다. 1967년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아시나요〉 뮤직비디오에는 어린 한국 병사 조성모와 베트남 소녀역의 배우 신민아의 애절한 눈빛 교환 장면이 나온다. 뮤지컬 〈천국의 눈물〉은 이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천국의 눈물〉은 특히 주역들의 무서운 티켓파워로 화제가 됐다. 김준수 주연의 뮤지컬 〈천국의 눈물〉은 1차분 1만5천 석을 5분 만에 매진시키고, 2차분 1만3천 석을 3분30초 만에 매진시킨 데 이어 3차분 역시 2분30초 만에 매진됐다. 창작 뮤지컬 〈피맛골 연가〉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 콘텐츠 육성을 위해 피맛골 연가는 지난해 초연에 이어 오는 8월 다시 무대에 오른다. G

글 · 김정은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

연극 **나는 너다** 배우 송일국이 첫 연극무대에 도전해 1인 2역(안중근과 그의 아들 안준생)을 맡았다. 안중근의 삶을 조망한 〈나는 너다〉는 2010년 안중근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을 넘어 동양 평화를 주창한 세계 역사가가 기억해야 할 영웅, 안중근의 삶과 그 뒤에 가려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웅의 아들, 안준생의 엇갈린 간극이 흥미진진하다.

일시 2011년 5월 17일~6월 6일 **장소**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580-1513

축제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국내외 단체의 실내극 및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극 등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음악극을 선보인다. 프랑스, 러시아,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 6개국에서 초청되는 80여개의 공식초청작 찾아가는 축제 등의 다양한 프린지 프로그램, 국제 심포지엄,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일시 2011년 5월 10~28일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관람료** 2만~4만원(공연마다 다름)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31-828-5892

전시 **대한민국 어머니 특별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 '어머니'를 IT기술과 3D로 만난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진 특유의 생명력과 대담함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생명력의 근원을 찾는다. 이번 전시는 어머니에게 가는 길, 어머니의 일생, 엄마가 어릴 적엔, 어머니의 지혜,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 부친 편지 등 총 6개 관으로 나눠 전시된다.

일시 2011년 8월 28일까지 **장소** 국립과천과학관(특별전시관) 관람료 성인 1만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8천원 **문의** 1577-7056

한핀
〈나는 너다〉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대한민국 어머니 특별전
〈대한민국 어머니 특별전〉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서커스			
태양의서커스 바레카이	잠실종합운동 내 빅탑	5월 29일까지	1566-1369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샤롯데씨어터	8월 15일까지	1588-5212
그리스	한전아트센터	6월 12일까지	1588-5212
브레멘 음악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5월 29일까지	1544-5955
오즈의 마법사	유니버설아트센터	5월 29일까지	02-517-6334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0주년 공연	유시어터 (청담동)	8월 28일까지	02-556-5910
내 이름은 김삼순	상명아트홀 1관	5월 31일까지	02-764-8760
최정원의 〈피아프〉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6월 5일까지	02-2230-6600
콘서트			
성시경 콘서트〈처음〉	올림픽체조경기장	5월 28~29일	1544-1555
컬투쇼 대학로 소극장공연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1	7월 3일	1544-4997
조용필&위대한 탄생 전국투어 콘서트	의정부종합운동장	6월 4일	031-871-7004
클래식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6월 4일	031-783-8000
국내외 한센병 가족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그대 있음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 28일	031-452-5655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5월 19~22일	02-586-5282
무용			
김덕수의 전통연희상설공연 〈판pa:n〉	전통연희상설극장 광화문아트홀	오픈런	02-722-3416
국립발레단 새롭게 시도하는 창작발레 프로젝트 <Converdance>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5월20~21일	02-587-6181

5월 둘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5월 1일~5월 7일

곡명	가수
1 Don't Cry	박봄
2 피노키오 (Danger)	f(x)
3 너를 위해	임재범
4 Shampoo	애프터스쿨
5 Ma Boy (마보이)	씨스타19
6 Love Alone	miss A
7 꽃피는 봄이 오면	BMK
8 LOVE SONG	빅뱅
9 거울아 거울아	4minute (포미닛)
10 여전히 아름다운지 (Feat. 김연우)	토이 (Toy)

부부만의 '새끼 손가락'

결혼 초 신랑·신부는 서로 많은 약속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약속이 결혼 이후 얼마나 지켜지는지 궁금하다. 약속은 지켜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5월은 가족 사랑의 약속을 되새겨 보기 좋은 시기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약속이 있다면, 가족끼리 다시금 실천 가능한 약속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무리 싸우더라도 각방을 쓰지는 않겠습니다.'(신랑)

'다투더라도 아침밥은 꼭 챙겨주겠습니다.'(신부)

'비자금을 위해 딴 주머니는 절대로 차지 않겠습니다.'(신랑)

'남편의 비자금을 눈감아 주겠습니다.'(신부)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내놓은 '결혼매니페스토'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어떨까. 어느새 남편은 딴 주머니를 꿰차고 아내는 그 딴 주머니를 '색출'하려고 눈을 부릅뜨지 않을까.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대통령 등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내놓는 정책공약을 가리킨다. 후보자들은 반드시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만일 당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지키라'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은 비단 정치판만이 아니다. 기업과 소비자, 관청과 주민들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친구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결혼매니페스토'다. 신랑·신부가 서로에게 약속을 내걸고 그것을 지켜 나가게 하는 것으로,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모든 결혼식에서 행해져 온 혼인서약의 '서약'이 바로 결혼 또는 결혼매니페스토인 셈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서약은 '항시 사랑하며 존중하고…' 식의 추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에 비해 결혼매니페스토는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이라는 것이다.

일러스트 · 우현호

2006년 초부터 시작된 매니페스토운동에 참여해온 필자는 그 후부터 모든 주례는 매니페스토 주례로 서기로 했다. 그래서 주례 의뢰가 들어오면 으레 당장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혼매니페스토를 몇 가지씩 적어 와야 주례를 서 주겠노라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한다. 그러면 신랑·신부들은 각자 결혼 후 실천 가능한 약속들을 써서 보내온다.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바치겠다'는 신랑의 매니페스토에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매일 밤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는 신부의 약속은 하객들을 감동시키기도 한다.

주례를 서다 보면 매니페스토에도 세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청소·설거지를 도맡아 하겠다'는 신랑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양가 부모님께 1주일에 한 번씩 똑같이 전화를 드리겠다'고 양성평등적 약속을 하는 부부도 있다.

'하루에 한 번씩 뽀뽀를 해 주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편지를 쓰겠다' '아내에게 발마사지를 해 주겠다' '남편의 발을 닦아 주겠다' 등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약속이 결혼 이후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지, 이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

약속은 지켜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5월은 가족 사랑의 약속을 되새겨 보기 좋은 시간이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약속이 있다면, 가족끼리 다시금 실천 가능한 약속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 어떤 것보다 근사한 선물이 될 것이다. G

글 ·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2011 장애인식개선 콘테스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작품현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분야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응모자격

자격제한 없으며 누구나 응모 가능

응모기간

2011년 7월 15일(금) 18시까지
(마감시각 이후 접수 불가)

결과발표

2011년 8월 5일(금)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모전 공식카페

- 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ad.or.kr
- 공모전 공식카페 :
  http://cafe.naver.com/hopeday

공모주제

장애인고용

에세이

- 취업알선, 직업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등 공단의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근로자의 이야기
-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비장애인 동료의 이야기
-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장애인, 꿈을 이룬 장애인의 이야기

인쇄매체디자인

- 공단의 슬로건을 함축
  - 슬로건 :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희망찬 세상
-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
- 공단의 사업을 통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예)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기업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 '장애인 = 휠체어'라는 상투적인 픽토그램, 동정적 · 시혜적 내용 지양

사진

- 공단의 슬로건을 함축
  - 슬로건 :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희망찬 세상
-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
- 공단의 사업을 통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예)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기업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 동정적 · 시혜적 내용 지양

시상내역

구분	에세이	인쇄매체 디자인	사진	상장	상금
최우수상	1	1	1	고용노동부 장관상	각 250만원
우수상	1	1	1	공단 이사장상	각 100만원
장려상	5	5	5	공단 이사장상	각 50만원

접수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심사기준, 입상자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공식카페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품행사

제20회 작품현상공모전을 맞아 최종 입상하시지 못한 분들 중 2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 증정

후원

규모의 편견을 **이겨내는**

중소기업의 **가능성!**

가위 · 바위 · 보 게임을 할때 남녀노소가 불문인것 처럼,
규모와 상관없이 기술력과 가능성만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중소기업이 만들어 갑니다.